Weekly 공감
2011.06.08 NO.112
gonggam.korea.kr
지역경제 지도가 바뀐다 P13~27
중점기획 노사 갈등은 옛말… 이젠 협력시대 P28~35
4대강에 길이 있다… 모로코에서도 벤치마킹 P10~11

저탄소 생활실천
그린에너지패밀리
www.gogef.kr

올여름 전기절약 온국민 다함께 팍팍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1. 실내 **건강온도 26℃ 이상** 지키기
   (권장온도: 공공28℃/ 일반 26℃ /판매시설 • 공항25℃ 이상)
2. **낮 2시 ~ 3시**에는 **에어컨 사용 자제**하기
   특히! 낮 3시 전후엔 **에어컨 10분 끄기**
3. 점심 시간 및 외출 시에는 **조명등 끄기**

"실내외 온도차가 5℃이상 차이가 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비염, 폐렴 등 '냉방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강온도 26℃를 지켜주세요."

권오중 의학박사 (KBS 비타민 외 다수 출연)

과냉방
아직도 춥게지내?
덜덜 떠는 거봐~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글로벌 경쟁의 알곡’ 광역경제권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세계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경제권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이란 지역발전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경제활동의 연계성과 보완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해 설정한 개발권역을 말한다.

프랑스는 96개의 데파르트망(도)을 22개 레지옹(광역경제권)으로 개편했다. 영국은 42개 카운티를 9개 광역계획권으로 묶어 지역개발청(RDA)을 설립했다. 일본은 47개 광역자치단체를 8개 광역권으로 설정했다. 미국도 국가성장엔진으로 11개 광역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광역경제권을 설정해서 육성하는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경쟁의 핵심 단위로 지역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나라’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지역’에 투자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이경제권과 우리의 수도권이, 일본 규슈권과 우리의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일부 지역은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주는 이점을 누리기 위해 행정구역의 확대개편과 경제공간의 광역화를 통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백년 전에 획정된 행정구역에 매몰되어 광역경제권 육성이 어려웠다. 광역시도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연대보다는 경쟁하고 차별화하기에 바빴다. 중앙정부 또한 시도별 ‘나눠주기식’ 분산투자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화발전을 꾀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광역경제권은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다. 정부는 16개 시도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권역별 특성화와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선도산업 육성, 인재양성사업, 30대 선도프로젝트,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지금 규모와 범위의 경제 이점을 노려 행정구역의 확대개편과 경제공간의 광역화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우리도 16개 시도의 행정구역 칸막이를 걷어내고 광역경제권을 설정하여 권역별 특성화와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도입한 광역경제권은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광역경제권 추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칸막이에서 벗어나 인접한 지자체들이 협력하고 연계하면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준 것은 큰 성과다. 대구와 광주가 협력하는 ‘달빛동맹,’ 전남 동부지역과 경남 서부지역 9개 시군이 만든 ‘남중권발전행정협의회’도 좋은 사례다.

광역경제권 육성은 글로벌 트렌드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의 뿌리내림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차제에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묶은 중부경제권과 호남권·동남권·대경권을 묶은 남부경제권을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것도 기대해 본다. G

Contents

NO.112 2011.06.08 통권 213호

일러스트 · 이철원

기획특집

모든 길은 광역경제권으로 통한다

세계는 지금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라지요. 우리 정부도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권역별 산업과 인재를 키우는 '5+2 광역경제권',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4+α 초광역개발권',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은 우리나라의 고른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발전한 곳 밀어주고 뒤처진 곳 끌어주기 위한 고민을 하나씩 풀어 가다 보면 우리나라 곳곳에 고루 발전의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표지 이야기 "우리 마음이 들리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의 첫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정성스레 묘비를 닦고 있다. 사진 · 연합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6.0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조선DB
08

32

54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9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전국의 메트로폴리탄 시대 기대돼

“기획특집 ‘KTX 경제권이 뜬다’ 기사를 읽고서 전국이 메트로폴리탄 시대에 접어들 내일이 그려졌습니다. KTX 개통 후 지방도시에서 국제회의 개최가 증가한 것은 향후 샤워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철도를 전철화하고 일반철도를 고속화하여 KTX와의 연결을 통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020 비전은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박준석 (서울시 관악구 서림동)

녹색캠핑, 우리 가족에게 여행 이정표 돼줘

“중점기획 ‘녹색캠핑’은 여행하는 저희 가족에게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녹색캠핑이라는 막연한 궁금증 대신 ‘아니 간 듯 다녀오는 것’이라는 원칙은 쉬우면서도 간단한 해결책이어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행의 계절인 6월에 많은 여행하는 가족들이 가슴 속에 ‘녹색캠핑’이라는 이 단어와 원칙을 간직한다면 어느덧 성큼 녹색캠핑이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박창환 (전남 신안군 장산면)

T-50 수출 소식은 국방 대한민국의 쾌거

“한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게 됐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는 중형자동차 1만6천 대 수출에 맞먹는 금액이라니 대단합니다. 끈질긴 노력으로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을 성사한 것은 국방 대한민국의 쾌거요,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치를 내건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에 의한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30년까지 1천 대 수출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니 이 역시 기필코 달성할 수 있도록 항공산업체와 정부 당국의 부단한 노력뿐만 아니라 대 국민적 성원을 함께 보냈으면 합니다.”

박동현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기타리스트 정성하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

“기타리스트 정성하 군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수많은 청소년을 떠올려봅니다. 공부만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소년 시기에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열정과 꿈이 있는 청소년이라면 이 기사를 보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의미까지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재오 (서울시 중구 충무로5가)

젊은 김치총각 사장 이야기 신선

“‘스물다섯 총각, 김치 만나 일 냈다’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를 세계에 알리려면 젊은 감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김치총각 노광철 대표가 수익금의 전부로 다시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나눠주었다는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박미자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이 기사, 아쉬워요

“KTX 고장 원인과 해결방안도 제시했으면”

KTX를 많이 타는 시민으로서 요즘 KTX의 안전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기획특집에서 KTX 경제권과 함께 안전 불감문제를 짚어줬지만 시민들이 더 궁금한 내용은 왜 KTX가 빈번히 고장이 나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자세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송혜림 (대학생,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캠핑 요리 정보도 알려주세요”

휴식도 즐기고 자연도 살리는 ‘녹색캠핑’ 기사가 매우 유용했습니다. 휴가철이 가까워지면서 캠핑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때마침 자연을 보호하는 녹색캠핑에 대한 도움말과 멋진 캠프장 등 유용한 정보가 많아 좋았습니다. 다만 주부인 저로서는 캠핑 요리도 다뤄줬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박경숙 (주부,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알립니다

반짝이는 생활정책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공감정책' 국민제안을 공모한다. 평소 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공모 기간 | 6월 30일까지
공모 분야 |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문화행정업무 전반
공모 내용 |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도개선 과제, 규제완화 방안 등
응모 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국민제안' 메뉴의 '공모제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공감정책 공모' 코너에서 응모
지원 혜택 | 시상 외 상품 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 02-3704-9247 www.mcst.go.kr

그리운 우리 마을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월간 〈좋은생각〉과 함께 '우리 마을 이야기 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웃과의 인간미 넘치는 에피소드, 우리 동네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이야기, 어릴 적 겪은 재미난 일 등 사람과의 소통과 마을에 관한 추억담을 수기로 담아 보내면 된다.

수기 주제 | ① 소통 ② 그리움과 추억
원고 분량 | 2백자 원고지 10장 내외(A4용지 1~2장)
응모 방법 | 좋은생각 홈페이지에서 '원고응모하기' 접수
원고 마감 | 7월 31일까지
지원 혜택 | 시상 외 상품 수여

좋은생각 www.positive.co.kr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삐'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전화료 약 1백40원
문자 투표 | '제주' 'jeju' 'JEJU' 중 택1 하여 문자 작성 후 001-1588-7715로 전송.

자세한 내용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공식블로그(blog.naver.com/7wondersjeju)' 참조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바로잡습니다 6월 1일자 111호 15쪽에 실린 '첫 국가기념일 맞은 의병의 날' 기사에서 연락처로 표기된 '충남 의령군'은 '경남 의령군'으로 바로잡습니다.

공감퍼즐

		1			2
3					
				4	
5		6			
	7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6월 14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최적의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는?
3.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세 분 시인을 함께 이르는 말.
4. 다이아몬드·비취·사파이어·루비… 이런 것들을?
5. 기름에 부쳐서 만드는 빈대떡, 누름적, 전병 같은 음식. '김치 ○○○.'
7.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남부의 계곡 지대를 이르는 이름. 실리콘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세로
1. 묵은 기구나 제도, 법령 등을 없애버림.
2. 가치, 능력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이번 일은 우리 팀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이 될 것이다."
3. 소말리아 해상에서 한국 선박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창설한 대한민국 해군 부대.
4. 6월은 호국, ○○의 달.
6. ♬~개굴 개굴 ○○○ 노래를 한다~♪

〈Weekly 공감〉 110호(5월 25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3** 청소년 **5** 베개 **6** 새삼 **8** 지아비 **9** 평창
세로 **1** 정년 **2** 무지개 **4** 소쩍새 **5** 베이비붐 **7** 삼지창

〈Weekly 공감〉 110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병국 · 전남 무안군 삼향읍
김창수 ·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박형호 ·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장정숙 · 경남 진주시 칠암동
한동민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전관예우는 공정사회에 가장 배치"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서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

정부는 6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조인·공직자들의 경력세탁, 로펌 등 취업, 전관예우 등이 크게 제한받게 된다.

앞으로는 장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이 크게 제한된다. 또 퇴진 후 재취업을 위한 '경력세탁'이나 공직자의 대형로펌·회계법인 취업도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6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전관예우"라면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전문가, 전·현직 공직자 등 1백50여 명이 참석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법무부가 보고한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우선 정부는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행위제한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공직윤리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취업 이후 행해지는 청탁·알선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재취업 후 청탁·알선 규제 '행위제한제도' 도입

이에 따라 장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1+1 업무제한(Cooling Off)'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5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에서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 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유사한 제도다.

퇴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은 영구적으로 취급 금지된다는 일반원칙도 법률에 함께 명시된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의 대상 공직자들은 퇴직 후 1년간 업무 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금융감독원 비리에서 드러난 '경력세탁'(퇴직 전 계획적 보직관리를 통해 '퇴직 전 3년간' 경력기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된다. 앞으로는 취업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이 현

조선DB

법무부는 '전관예우'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깨기 위해 형사사건 처리기준의 객관화·세분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법원과 검찰청사가 밀집해 있는 서울 서초동 법조거리.

재의 '퇴직 전 3년간'에서 '퇴직 전 5년간'으로 확대된다.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취업심사 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감사 부패방지 조세 건축 토목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금감원 2급 이상 등)에서 실무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고,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개선이나 군수품 관리 분야의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가 확대된다.

취업심사 대상에 모든 로펌 · 회계법인 포함시켜

전직 공직자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해 사실상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현행 취업심사 대상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외형거래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자본금 기준 미달로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앞으로는 외형거래 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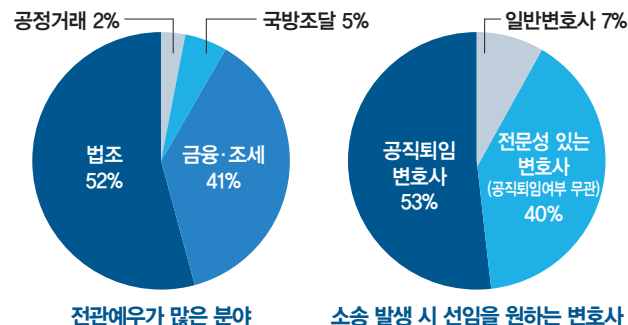
이렇게 전관예우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대신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전문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퇴직 후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순환보직에서 직무 중심의 전문보직 체계로 전환하고 민관 개방과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된다. 퇴직자의 인재풀과 구인정보DB를 구축하고,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한편 법무부는 '전관예우'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깨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의 실효성 확보 ▲형사사건 처리기준의 객관화·세분화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을 4대 중점 추진사항으로 선정했다.

특히 검사·법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해 전관예우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세분화하고,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며, 영장항고제를 도입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정상감경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형사사건 처리 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G

글 · 배진영 기자

설문조사 결과

공직윤리제도 개편 내용

구분		개편내용(요약)		비고
		개편 이전	개편 이후	
행위제한도입	1+1 업무제한 (Cooling Off)	신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 금지 *재산공개의무자 대상	퇴직자 청탁·알선 등 부당한 영향력 방지
	청탁·알선 금지 명문화	신설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을 영구금지	
	취업알선 금지	신설	업무 관련 기업에 개인 및 기관 차원의 취업 청탁·알선 금지	
취업제한개편	업무 관련성 적용기간 확대	퇴직 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의 업무	퇴직 전 의도적 경력세탁 관행 방지
	취약분야 심사 강화	(금감원) 2급 이상 심사	4급 이상 심사	취업심사 대상자 확대로 전관예우 방지 실효성 확보
		(국방부·방위사업청) 취약분야를 감사·건축·토목 등에 한정 (타부처 동일)	군수품 관리, 방위력 개선 등으로 취약분야 확대	
	대형 로펌·회계법인 취업심사 대상 포함	자본금 50억 & 외형거래 150억 이상(취업심사 대상 3,538여 개)	외형거래액이 큰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 포함	
	사외이사 등 비상근 직위 취업심사 법제화	공직윤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취업심사 기 실시 중	비상근 직위 취업심사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취업심사 관련 소송 등에 필요한 명확한 근거 제시
위원회	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신설	민간위원 확대, 관련기관 자료협조 의무화 등	위원회 심사기능 강화를 통해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 강화

5월 30일 청와대 환영행사가 끝난 후 이명박 대통령과 '아덴만 여명'작전 유공자들이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아덴만 영웅들! 그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청해부대 최영함 장병 청와대로 초청

해적들이 창궐하는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견됐던 청해부대 6진이 지난 5월 27일 귀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30일 삼호주얼리호 구출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운 청해부대 최영함 장병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훈장 등을 수여하고 오찬을 베풀었다.

아덴만의 영웅들이 돌아왔다. 지난 1월 21일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던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청해부대 최영함(함장 조영주 대령)과 장병 3백50여 명이 6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난 5월 27일 귀국했다. 작년 12월 8일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항했던 청해부대 6진은 파병 기간 중 총 307회의 선박호송작전, 14회의 검문·검색 작전을 수행했고, 26척의 해적의심선박을 차단했다.

최영함이 수행한 작전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1월 21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 김규환 대위가 지휘하는 해군 특수전요원(UDT/SEAL)들은 소말리아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의 성공은 작년 3월의 천안함 폭침, 11월의 연평도 포격으로 가라앉아 있던 국민과 국군의 사기를 고양하는 데

조선DB

크게 기여했다.

'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 이후에도 최영함의 활약은 계속됐다. 지난 4월에는 해적들에게 피랍된 한진텐진호에 UDT대원들을 투입, 안전격실에 피신해 있던 우리 선원들을 무사히 구출했다. 지난 3월에는 내전 중인 리비아에 두 차례 파견되어 교민과 취재진 37명을 몰타와 크레타로 철수시켰다.

조영주 함장 "국민의 성원으로 임무 완수"

청해부대 6진은 군사·외교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일구었다. 최영함은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연합해군사령부(CMF)와도 긴밀하게 협조, 해적의 위협 아래 놓인 외국선박들을 구출했다.

1월에는 덴마크 상선 레오파드호를 구출했고, 해적으로 추정되는 선박의 추격을 받던 터키 상선의 안전항해를 돕기도 했다. 또 최영함은 오만의 무스카트·살라라, 몰타 거주 교민들을 초청해 해외에 군함을 보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무스카트 한인교회에 운동용품 및 학용품 2천여 점을 기증하는 등 교민의 자긍심 고취와 국위선양에도 기여했다.

5월 27일 최영함이 귀환한 해군 부산작전기지에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군 지휘관과 장병, 허남식 부산시장, 청해부대 장병 가족, 삼호주얼리호·한진텐진호 관계자, 부산시민·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이 열렸다.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 용사들은 국민들에게 우리 군이 적과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라는 것을 증명해 줬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세력에게 다시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한 국군의 모습을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조영주 대령은 "삼호주얼리호 구출 1차 작전 당시 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면서 "국민의 성원으로 임무를 완수했으며 무사 귀국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해부대 장병 가족들은 6개월 만에 돌아온 장병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이 대통령 "국민의 생명·재산 지킨 역사 이뤄"

이명박 대통령은 5월 30일 최영함 소속 대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조영주 함장 등 장병들에게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직접 수여한 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영웅이고 선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첨병"이라면서 "여러분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역사를 이뤄냈다"고 치하했다.

최영함 장병들에 의해 구출된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세계 최강의 해군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영함 장병들은 최영함 승조원 모자와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최영함에 게양했던 취역기를 담은 액자를 이 대통령에게 증정했다. 이어 최영함 장병들은 25일간의 특별휴가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석해균 선장이 쾌차하는 대로 청와대로 초청할 예정이다.

한편 청해부대 6진과 교대해 소말리아 해역에서 작전을 벌일 청해부대 7진 충무공이순신함(함장 한동진 대령)은 지난 4월 5일 부산 작전기지를 떠났다. 2009년 3월 대조영함 이후 7번째로 파견되는 충무공이순신함은 이미 2009년 청해부대 3진으로 파병된 바 있다. 24시간 한국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연합작전관·마취군의관 등을 증원해 임무수행능력을 보강한 충무공이순신함은 올해 9월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G

글·배진영 기자

오마르 카바즈 모로코 국왕고문이 모로코 대표단과 함께 5월 31일 경기도 여주군의 한강살리기 현장인 이포보를 방문,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물부족 해결에 4대강살리기가 모델"

모로코 국왕고문 방한… 이포보 등 방문 수자원정책 배워

우리나라의 4대강살리기 사업이 해외에 전수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의 물 관련 설계 전문가들이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북아프리카의 물 부족 국가인 모로코 정부 대표단이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을 배우기 위해 4대강살리기 현장을 찾았다.

모로코의 오마르 카바즈 국왕고문 등 모로코 정부관계자들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현장을 찾았다. 정부는 이번 방문이 4대강살리기의 첫 해외전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바즈 고문을 비롯한 수자원환경국무장관, 농수산부장관 등 모로코의 정책결정권자 10여 명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여주군의 한강 이포보를 비롯해 4대강살리기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같은 여주군 내 강천보 현장 인근에 있는 4대강살리기 홍보관을 찾아 증강현실을 이용한 4대강 체험 등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한국의 수자원 관리 정책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강과 모로코 북부지역 실태 비슷"

카바즈 고문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 물과 위생에 관한 자문회의에서 한국의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브

리핑에 감명받아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에게 보고했으며, 이에 모로코 국왕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 모로코의 롤모델로 삼기로 하면서 모로코 대표단의 4대강살리기 현장 방문이 성사됐다.

카바즈 고문은 이날 4대강살리기 현장을 둘러본 뒤 "모로코는 물 부족 문제를 비롯해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한국의 4대강살리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모로코 대표단의 현장 안내를 담당한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한강의 상황과 모로코 북부지역 실태가 비슷하다고 한다"며 "그 지역 역시 우기에는 홍수가 나고 하천오염이 심해 우리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성공 여부를 모로코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한국과 같이 물 부족 국가군에 속하는 모로코는 연 강우량이 북부지역 1천밀리리터, 남부지역 2백3밀리리터 정도이며, 특히 남동부 사하라 사막 지대는 남부지역 강우량의 절반에도 못 미쳐 식수와 용수난이 심각하다. 또한 모로코는 강물의 유속이 빨라 홍수를 유발하고, 또 대부분이 대서양으로 흘러들어 가거나 사하라 사막에서 증발되기 때문에 수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카바즈 고문은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 수립의 노하우를 4대강살리기에서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물 전문가들도 벤치마킹

한편 지난 5월 11, 12일에도 말레이시아의 물 관련 주요 설계전문가 20여 명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4대강살리기 현장을 방문했다. 한국의 4대강살리기와 청계천 복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말레이시아의 클랭강 복원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말레이시아 클랭강은 셀랑고주 및 쿠알라룸푸르시를 지나는 강으로, 오수처리가 제대로 안돼 오염이 심하다. 총 길이 1백20킬로미터에 4급수 수준의 수질인 클랭강이 지나는 셀랑고주와 쿠알라룸푸르시엔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백만명이 사는데, 이 강을 식수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들의 현장답사는 홍수, 수질개선 등 말레이시아의 고질적인 물 문제에 관한 해법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4대강살리기 관련 기술 수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4월 초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나집 빈 툰 압둘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도 4대강살리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고, 청계천 복원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G

글·박경아 기자

금강 금남보에 국내 최대 자연하천형 어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완공된 모습의 금강 금남보의 자연하천형 어도. 물이 흘러나오는 하류 부위다. 다양한 수중생물이 강의 상·하류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든 자연하천형 어도는 4대강 전체에 33개가 만들어진다.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하천형 어도(魚道)가 처음으로 완공됐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6월 1일 기존 국내 어도의 생태적 기능과 규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하천형 어도가 금강 금남보에 완공됐다고 밝혔다. 이 어도는 폭 4~40미터, 길이 3백55미터, 경사도 1:122의 자연하천형으로 설계, 시공됐다. 6월 말까지 완공되는 금남보가 가동에 들어가면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완공된 자연하천형 어도는 기존의 자연하천형 어도의 설계를 바탕으로 해 환경청 등 관계기관, 생태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어류와 저서동물 등 다양한 수중생물이 자연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물 은신처,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생태환경적인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어도 곳곳에는 물고기, 참게, 다슬기, 수서곤충 등 다양한 수중생물의 은신처, 소하중도, 여울 등이 조성됐으며 어류 관찰대, 생태학습원에서 어도를 이용하는 수중생물을 직접 보고 느끼고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금남보 어도를 포함해 4대강에 설치 중인 환경친화적인 어도 33개 대부분이 올 6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게 된다. 이러한 어도는 규모면에서 국내에 전례가 없는 최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갈수기뿐 아니라 일년 내내 수중생물의 자연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공함으로써 생태환경적 기능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내 최고 단계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의 16개 보가 완공되는 올 6월 말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역사·문화를 형상화한 4대강 보의 뛰어난 경관을 배경으로, 인접한 수변생태공원·습지공원에서 여유있는 휴식을 취하고, 4대강 어도에서 수중생물을 체험하며 즐기는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특집

지역발전의 핵심축 광역경제권이 뜬다

세계는 지금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라지요.
우리 정부도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권역별 산업과 인재를 키우는 ‘5+2 광역경제권’,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4+α 초광역개발권’,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은 우리나라의 고른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발전한 곳 밀어주고 뒤처진 곳 끌어주기 위한 고민을 하나씩 풀어 가다 보면
우리나라 곳곳에 고루 발전의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일러스트 · 이철원

지난해 12월 부산과 거제를 바다 위와 바다 밑으로 잇는 '꿈의 바닷길' 거가대교가 개통됐다.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부산과 거제를 중심으로 한 동남권의 교통과 물류가 한층 원활해졌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세계화+지방화 실현… 전국을 5개권역+강원·제주 등 5+2 체제로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국민 생활은 광역화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구역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발전 시책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고른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개선해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다.

푸른 바다 위 도열한 거대한 흰색 기둥들이 신전의 그것인 양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다. 2004년 12월 착공돼 6년 동안 총 사업비 1조4천4백69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14일 개통된 거가대교(巨加大橋)의 모습이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에서 가덕도를 거쳐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길은 총길이 무려 8.2킬로미터. 2개의 사장교(총길이 3.5킬로미터)와 침매터널(3.7킬로미터), 육상터널(1킬로미터)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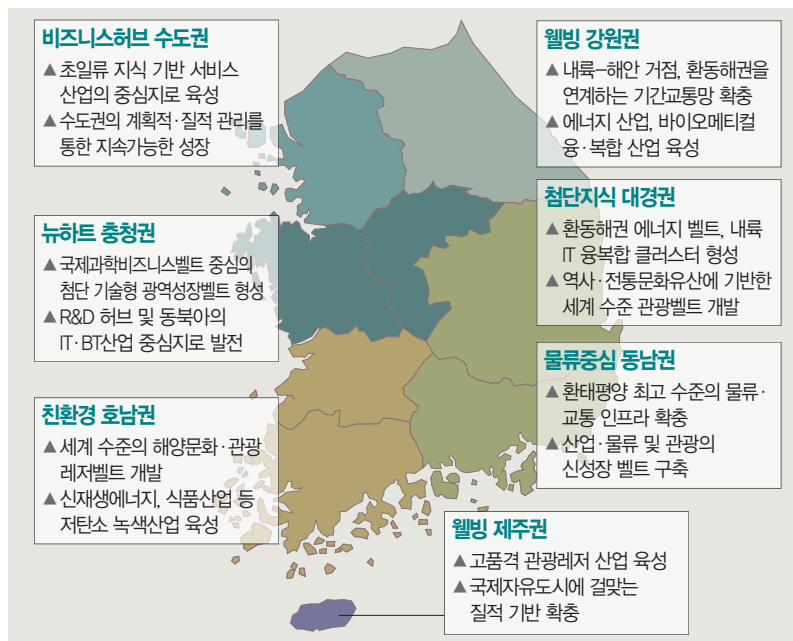
거가대교의 완공으로 부산~거제 통행거리는 기존 1백40킬로미터에서 60킬로미터로, 통행시간은 기존 1백3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됐다.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인근 지역을 잇는 광역도로망이 구축되어 경상남도 일대를 포괄하는 광역경제권 '동남권'의 산업·항만·물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광역경제권'이란 시·도 중심의 자치단체를 뛰어넘어 산업·교육·의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 5백만 내외의 권역을 의미한다.

외국도 광역경제권 육성이 대세

홍철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계는 지금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이에 세계 각국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광역경제권 정책을 지역경쟁력 제고의 최고 수단으로 인식해 기존의 지역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찌감치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화·분권화 추진에 나선

조선DB

5+2 광역경제권과 선도산업

5+2 광역경제권이란

- 2008년 9월 발표된 '5+2 광역화 활성화 전략'에서 출발.
-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권 등 2개의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설정.

4+α 초광역개발권이란

- 동서남북의 대외개방형 4대 벨트와 내륙특화벨트로 '4+α' 설정.
- 비전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광역경제권 상생발전의 신성장 지대 구축'.

프랑스는 기존의 96개 데파르트망(우리의 도 개념)을 1982년 22개 레지옹으로 개편해 개발 단위를 광역화했다. 미국은 '아메리카 2050 전략'을 통해 11개 광역경제권을 구상하고 광역대도시권 중심의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8개 광역지방계획권으로 개편하는 등 세계 각국은 광역경제권 개편과 지방 분권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08년 7월 기존의 행정구역 개념을 뛰어넘는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각 지역의 인구 규모와 인프라, 산업 집적도, 역사문화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전국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 인구 5백만 내외의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강원권 ▲제주권 등 인구 1백만 전후의 독립적인 경제권 2개를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정한 것이다.

광역경제권은 ▲선도 프로젝트 추진(선도산업·거점대학 육성, 인프라 확충) ▲관련 기반 구축(산업용지 공급확대, 기업 지방이전 추진, 맞춤형 규제 개선) ▲추진체계 확립(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설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균특회계 전면 개편) 등의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지역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역경제권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초광역개발권 4+α'다. 동서남북 해안권의 4대 벨트와 내륙특화벨트로 구성된 초광역개발권은 '우물 정자형(井)' 국토개발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1백57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새만금종합개발 ▲첨단복합의료단지 건설 ▲접경지역 활성화 정책 ▲KTX고속철도의 전국 네트워크 건설 등 '6대 지역성장 사업'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란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비전을 생생하게 실현하게 될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성장축 재편…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녹색성장·광역인프라 구축·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

조선DB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지향한다.

수도권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선도산업	지식정보산업

서울·경기·인천을 묶은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다. 수도권 거주 인구는 2천3백44만명, 산업종사자는 3백69만명, 면적은 1만1천6백86제곱킬로미터. 하지만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의 입지가 규제받아 왔다.

때문에 오늘날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은 다른 나라 대도시권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동아일보사가 2009년 펴낸 <메가시티 미래와 경쟁력>에 의하면, 서울은 세계 20개 광역도시권(Mega-City Region·핵심도시를 중심으로 1일 생활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천만명 이상의 광역경제권) 가운데 종합순위 11위(경제적 번영 10위, 장소매력도 10위, 연계성 순위 1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발전이 발목이 잡혀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메가시티리전 재편전략을 국가 및 지역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광역도시권 재편을 통한 성장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수도권발전계획은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녹색성장·녹색도시 실현 ▲광역인프라 구축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간활용 면에서는 수도권 내 혼잡과 환경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요 성장축을 분산 육성하고, 성장축의 교차점에 광역거점도시, 지역거점도시, 부도심 등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과 연계·협력사업으로 동반성장 도모

서울·인천·경기도 내 도(부)심 및 거점도시의 특성화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업무거점, 산업 및 물류 거점, 남북교류거점, 친환경적 레저·휴양벨트 등으로 개발한다. 노후화와 쇠퇴화가 진행 중인 경인지역은 주거재생벨트와 산업·문화벨트로 발전시킨다.

수도권발전계획이 수도권만의 발전을 꾀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과의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즉 고용창출형 IMT(Intelligent Mechatronics)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창원과, 지능형 로봇서비스상업 지원사업은 대구와, 한방약초산업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 사업은 평창·함양·제천·안동·문경·상주·금산·진안·산청·장흥과 연계해 추진한다. G

글·배진영 기자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뉴하트

뉴 IT와 바이오산업이 끌고 대덕 R&D가 밀어주고

충청권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선도산업	뉴 IT	의약바이오
프로젝트	차세대무선통신 그린반도체	허브연계 신약실용화
거점대학	기술교육대 호서대	순천향대 충남대
성과목표	수출 21.6억 달러, 고용 2,500명	

조선DB

지난 1월 25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4세대 시스템 'LTE(Long Term Evolution)-어드밴스드(Advanced)'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충청권은 1995년을 기해 전국 평균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아산·당진 등에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들어간 데 힘입은 바 크다. 특히 무선통신 기기산업·디스플레이산업·정밀화학산업 등이 충청권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대덕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북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더해지면서 충청권은 더 큰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됐다.

백제문화 활용한 관광산업도 육성

이러한 상황에 걸맞게 충청광역경제권발전계획은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New Heart'를 비전으로 내세운다. 중간목표로는 ▲대한민국 IT·BT산업의 핵심거점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과학기술 거점 조성 ▲광역거점 연계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첨단과학과 문화·환경이 융합된 신발전지역 창출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청권의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것은 New IT와 의약바이오산업이다. New IT 분야에서는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단말기용 디스플레이 부품, 융합 통신용 고주파 부품, 초소형 정보저장 부품)과 IT 기반 그린 반도체 산업 성장 거점화 사업(실리콘 솔라셀·모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장비, 에너지 절감형 반도체)이, 의약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 사업(저분자·천연물·생물의약품), 첨단 신약 및 소재 실용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대덕 R&D특구와 오송·오창 생명과학산업단지, 천안·아산의 자동차·IT산업단지의 R&D기능과 생산기능을 광역적으로 연계하고, IT·BT·MT·CT산업 등 신성장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충청권의 백제문화와 일본 아스카문화를 연계한 충청국제관광프로젝트, 충남 내포의 해양문화-백제문화-충북의 고인쇄 문화자원을 연계한 충청권 역사문화대로 구축 등도 추진된다.

지난해 충청권 부품 패키징산업 육성사업(충북테크노파크),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대전발전연구원), 태양전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전자전달증대장치 사업(세미텍), 생체진단 의료기기용 핵심 센서 및 키트 개발사업(충북대 산학협력단), 비금속 광물자원을 활용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한국석회신소재연구소), 뉴IT부품과 부품산업용 금형 및 열처리 기술 지원사업(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에는 2010~2012년 3년간 54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글·배진영 기자

예향의 저력 살려 '녹색의 땅' 본향으로

부품소재·신재생에너지는 선도사업… 문화·관광은 전략산업

조선DB

광주 첨단산업단지 LED밸리에 들어선 SDN(주)의 태양광에너지 설비. 호남권은 친환경부품소재산업과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삼고 있다.

호남권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	
선도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친환경부품소재
프로젝트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카 LED
거점대학	목포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성과목표	수출 9억 달러, 고용 3,900명	

호남권발전전략은 예향(藝鄕)의 전통 위에 시대조류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산업화시대에 낙후됐던 지역을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호남권발전전략은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목표로는 ▲친환경 녹색산업 거점 육성 ▲문화예술과 해양·생태관광 육성 ▲지식창출 기능 고도화 ▲통합인프라 구축 ▲풍요롭고 살기 좋은 녹색공동체 조성을 설정하고 있다.

호남권발전전략은 친환경부품소재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선도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 외에 생물(전북·전남), 자동차·부품소재(광주), 자동차부품·기계(전북), 신소재·조선(전남), 광산업(광주), 정보가전(광주), 디자인(광주), 신재생에너지(전북), 물류(전남), 문화·관광(전남), 전통문화·관광(전북)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수립한 호남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는 1백61조3천6백52억원의 사업이 계획돼 있다. 분야별로는 선도산업육성 2천54억원, 전략산업육성 1조6천1백80억원,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5천2백59억원, 발전거점육성 93조4천9백43억원, 교통 및 물류망 확충 46조7천7백73억원, 문화관광 육성 및 자원이용 5조4천32억원,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 13조3천4백11억원 등이다.

영호남 손잡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출범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은 작년부터 동북아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서남해안풍력산업 허브 구축 사업, 친환경 광(光)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 육성 사업,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프로젝트에 7개 기관(R&D기관 6개, 비R&D기관 1개), 풍력프로젝트에 5개 기관(R&D기관 4개, 비R&D기관 1개), 광융합프로젝트에 7개 기관(R&D기관 6개, 비R&D기관 1개),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로젝트에 4개 기관(R&D기관 4개)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금년까지 최대 46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호남권발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호남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전남과 경남의 9개 시·군이 지난 5월 3일 동서화합과 남해안 선벨트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여기에는 여수·순천·광양·진주·사천시, 남해·하동·고흥·보성군이 참여하고 있다. G

글·배진영 기자

'그린에너지·IT융복합'이 새 성장동력

전통문화·첨단지식산업 통해 신산업·R&D 기반 확충

대경권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선도산업	그린에너지	IT융·복합
프로젝트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의료기기 실용로봇
거점대학	금오공대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
성과목표	수출 10.5억 달러, 고용 4,590명	

조선DB

전자기기와 철강 등 핵심 산업이 집약돼 있는 대경권은 '그린에너지'와 'IT융·복합'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대경광역경제권(이하 대경권)은 모바일 전자기기(구미), 철강(포항) 등 핵심 산업이 집적돼 있다. 최대 원자력발전 지역이며, 독도 일대 해역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신연료 해양에너지도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백두대간, 동해청정해역, 3대 문화권 등 문화콘텐츠 및 인력 확보 여건은 양호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는 미흡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및 R&D 기반을 확충하고 환동해권·환태평양 지역과의 연계 강화가 절실하다.

대경권 발전계획의 최종목표는 'Global Greentopia DG!'로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 기반의 녹색성장 중심지대를 지향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식기반산업 융·복합화 ▲지역 간 상생 네트워킹 ▲한국 속 한국관광 구현 등을 4대 중간목표로 설정했다. 이후 기본전략을 수립해 분야별·사업별 연계를 통한 시너지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경권은 우선 2009년 8월 31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의 의지를 다졌다.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구축'을 비전으로 해 '그린에너지'와 'IT융·복합'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그린에너지'와 'IT융·복합'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그린에너지' 산업에서는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 구축' 등, 'IT융·복합' 산업에서는 'IT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IT융합 실용로봇 상용화 기반 강화'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린에너지 부문 인재양성사업은 영남대와 금오공대가, IT융·복합 인재양성사업은 경북대와 계명대가 각각 선정됐다.

최종 목표는 'Global Greentopia DG!'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전신에 해당하는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의 'EXCO 확장사업', '해외협력분야 공동추진' 등을 포함한 경제통합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경제통합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사무국과 시도가 함께 경제통합T/F를 구성, 기존 과제의 지속추진과 경제통합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2015 세계 물포럼' 유치 도시로 선정됐으며, 코오롱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노윤구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대경권은 내륙·동해안 거점과 연계한 환동해권 에너지벨트 형성 및 IT부품 융·복합 등 첨단 신산업 육성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G

글·박근희 기자

해상교통 기반 동북아 물류중심 발돋움

부산·울산·경남 아우르는 산업·관광 신성장벨트 구축 예정

동남권	환태평양시대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선도산업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프로젝트	그린카 해양플랜트	기계부품 안전편의부품
거점대학	창원대 한국해양대 울산대	부경대 부산대
성과목표	수출 10.5억 달러, 고용 4,590명	

조선DB

2010년 7월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선이 입항했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 최고 수준의 물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를 아우르는 동남광역경제권(이하 동남권)은 전국 인구의 16퍼센트에 달하는 7백70만명이 살고 있다. 지역총생산(GRDP)은 약 1백60조7천억원 수준으로 수도권에 이어 전국 2위 규모다. 한반도의 해상관문인 동시에 기계·자동차·조선 등 주력 기간산업의 집적지로서 지속적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물류 및 교통의 핵심인 동남권은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해양교통의 중심축에 있다. 일본 규슈경제권과 인접, 잠재력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기간산업 및 물류·교통의 중심지'를 비전으로 하는 동남권은 환태평양 최고 수준의 물류·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물류 및 관광 신성장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비전달성을 위해 ▲산업·관광의 융합기지화를 통한 신성장벨트 구축 ▲환태평양 고부가 클러스터 형성 및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첨단 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한 살고 싶은 동남권 조성 ▲일본 등 인근국가와의 초국경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6개의 선도 프로젝트도 선정, 추진해 오고 있다. 부산신항 배후 물류·산업단지 및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를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부산항~광양항 철도 복선전철화 추진, 내륙~울산을 연결하는 동서8축 확충, 기간산업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다핵형 광역권 성장을 위한 부산외곽순환도로 구축 등이 그것이다.

일본 규슈권과도 초국경 협력 지속기로

동남권광역경제발전의 주축이 되고 있는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이와 함께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0년 11월 상하이 홍차우 공항에 동남권 홍보동영상으로 광고하는 한편, 동남권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동남권 상징로고 및 슬로건과 관광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또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2013년 '부산·울산·경남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공동사업에도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이순정 책임연구원은 "위원회는 지난해 7월 규슈경제조사협회와 초국경경제권 형성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하며 "권역내의 광역 연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동남권-규슈권 산업네트워크 협의회 창설 등 규슈권과의 초국경 협력을 지속화해 동남권이 동북아시아의 8대 광역권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근희 기자

"약점을 장점으로"… 지역특성화에 사활

강원은 IT와 의료산업의 융합… 제주는 아시아 최고 국제자유도시 노려

강원권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선도산업	의료융합	의료관광
프로젝트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동북아의료 관광거점
거점대학	강원대	한림대
성과목표	수출 1.8억 달러, 고용 1,500명	

제주권	아시아 최고수준 국제자유도시	
선도산업	물산업	관광레저
프로젝트	제주물산업	MICE
거점대학	제주대	제주대
성과목표	수출 1억 달러, 고용 750명	

강원광역경제권(이하 강원권)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춘 국제적인 관광·휴양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광역 인프라 및 산업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편이다.

강원권은 이에 '생명·건강 중심의 환동해권 신 발전지대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내륙과 해안을 거점으로 환동해권을 연계하는 기간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에너지산업 및 바이오·메디컬 융·복합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광산업 기반을 위한 서울~춘천~양양 동서고속도로 및 동해~삼척, 주문진~속초 동해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원주~강릉 철도를 건설하고 내륙산업 및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권은 IT산업과 의료산업의 융합을 바탕으로 또다른 도약을 준비 중이다.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민태홍 책임연구원은 "강원권은 2~3개 시·도로 통합된 다른 광역경제권과 달리 자력으로 경제권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특성화한 산업의 고도화와 수도권 배후 거점도시 육성, 동북아 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 강원권만의 장점을 극대화해 실행해 간다면 장래는 밝다"고 말했다.

제주광역경제권(이하 제주권) 역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에서 발달한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은 관광·레저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비전 제시와 함께 고품격 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질적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천혜의 자연 이용한 관광·휴양 기반도 확충

지역발전 정책 선도 프로젝트로 ▲서귀포 크루즈항과 같은 체류형 해양 레저관광 기반 확충 ▲해양과학관과 같은 수요 창출형 관광시설 건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제주 항공운송능력 확충 등을 선정했다. 제주권도 인구와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장점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한편, 다양한 전략을 통해 목표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고선영 책임연구원은 "제주는 광역경제권 중 단일행정구역으로 구성된 특별광역경제권이라는 특징을 충분히 활용해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타 광역경제권과의 적극적인 인적·물적 협력을 꾀함으로써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G

글·박근희 기자

광역 연결 '井자 개발'로 글로벌시대 대비

남해·동해·서해·접경지 활성화+내륙 특화벨트로 국제경쟁력 강화 노려

요즘은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를 맞아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은 국경을 뛰어넘는 지역개발책인 초광역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4+α 초광역개발권을 구축 중이다.

2020년이면 대외개방형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井)' 자형의 신성장 국토개발축이 완성된다. 남해·동해·서해·남북 접경지 등 4개 축을 기반으로 내륙 특화벨트를 개발하는 4+α 초광역개발권 전략이다.

지역발전위원회 이수호 지역개발국 과장은 "해양과 대륙으로 열린 초광역개발권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결하고 5+2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연계·보완하며 대외개방적 국가성장을 견인할 신국토성장축"이라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 전략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1백63개 기초생활권', '5+2개 광역경제권' 구상과 함께 지역발전전략의 3대 축이다. 현 정부는 지역 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초광역개발을 수립했다. 남해·동해·서해·남북 접경지 등의 4대 개방형 벨트는 2009년 12월 기본 구상이 확정돼 추진 중에 있다.

초광역개발의 선도권역은 남해안이다. 2010년 5월 종합계획이 우선 확정돼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른바 남해안 선(Sun)벨트다. 관광자원과 산업 인프라가 풍부한 남해안은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물류·휴양의 허브로 육성한다. 핵심 사업은 해양관광과 경제·물류 두 가지다.

남해안은 경제·물류·휴양 허브로 육성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로 대표되는 남해안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이를 활용해 한려수도권, 다도해권, 남도문화권, 도심형관광권 등 주요 권역별로 나눠 국제적 수준의 특색 있는 관광·휴양 클러스터로 개발할 계획이다.

조선DB

남해안 선벨트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물류·휴양의 허브로 육성된다.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단지 개발과 함께 기존의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하고 항공우주, 해양바이오 등의 새로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세계 4위의 선박 생산능력을 보유한 현대삼호중공업 전경.

남해안 선벨트는 동서 지역을 통합하는 기능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섬진강 1백리 테마로드 조성이다. 섬진강변 42킬로미터 구간에 생태·문화 공간이 있는 테마로드를 조성한다. 지역 간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13년 완공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기획총괄과 이준기 사무관은 "자연경관이 좋은 섬진강변에 생태탐방길과 휴식 공간 등이 조성되면 최고의 걷기 코스로 각광받을 것"이라며 "영호남의 경계선에 위치한 섬진강변 개발 사업은 동서 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편리한 해양교통이 강점인 남해안에는 일찍이 조선,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이 발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하고 항공우주, 해양바이오 등의 첨단산업이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이와 더불어 부산·광양항을 물류 중심의 항만으로 육성해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해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의 블루파워벨트로 개발된다. 울진·월성·고리의 원전과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삼척의 LNG 생산기지 등을 거점으로 삼아 연료전지나 풍력발전 등 차세대 녹색 에너지 산업을 동해안권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해안 기간산업의 집적지인 울산, 경주, 포항을 단일의 산업벨트로 조성하고 강릉, 삼척 등은 신소재와 해양바이오산업의 거점지대로 조성한다.

동해안은 에너지·관광… 서해안은 지식·첨단산업 거점

역사문화와 자연자원을 결합한 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설악권(해양·산악), 경주권(역사·문화), 강릉권(휴양·문화), 울릉권(영토수호·해양생태) 등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관광인프라를 정비하고 남북간·동서간 연계 교통망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서해안은 국제 비즈니스와 지식·첨단산업 거점으로 개발한다. 환황해(環黃海)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다.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한 서해안에는 IT와 자동차 등 첨단산업이 발달했다. 수도권의 배후지로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지대로 발달이 기대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인천, 황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국제물류·컨벤션·관광산업 등이 융합된 국제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4대 축의 하나인 남북 접경지는 생태·평화벨트로 조성된다. 남북 접경지는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다양한 생태자원과 남북분단의 상징성을 지닌 역사문화 유산이 풍부하다. 이런 특징으로 DMZ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 희귀 생태 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고 접경지역의 주요명소나 관광지 주변에는 자전거길을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현재 관계부처가 종합계획을 협의 중이며 관련법률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속히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4대 축 개발과 함께 내륙 특화벨트 개발도 추진한다. 내륙 초광역개발권은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등을 잇는 '내륙첨단산업권', 태백·설악산권~소백산권~덕유산권~지리산권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권',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등으로 구성된다.

내륙첨단산업권에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기반의 신성장산업이 육성된다. 백두대간권은 휴양·생태 관광지대로 개발된다. 대구와 광주는 연구개발(R&D) 특구를 상호 연계해 영호남의 대표 거점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 문정호 연구위원은 "초광역개발은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는 중장기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으로 단기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국토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대외적으로는 동북아 시대 및 통일을 대비하고 대내적으로는 광역권 간 연계·협력에 기반을 둔 지역 상생 발전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G

글·이제남 기자

원천기술의 산실 '과학 3각 벨트' 확정

우수한 젊은 과학자의 해외유출 · 세계 각국의 두뇌확보 경쟁에 능동 대처 기대

최근 '과학 한국'의 미래를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확정됐다. 대전–충청권의 거점 · 기능지구와 대구–울산–포항권, 그리고 광주권의 기초과학원구원 지역 캠퍼스를 연결하는 거대한 '과학벨트 트라이앵글'이 그려진 것이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핵심 시설로 하는 과학벨트는 한국의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대전 대덕특구가 거점지구로 결정됐다. 이곳에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선다. 또 거점지구를 측면에서 뒷받침할 기능지구에는 청원(오송·오창), 연기(세종시), 천안 등 3곳이 선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16일 과학벨트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설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신동·둔곡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선DB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시설이 들어설 거점지구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신동·둔곡 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대전 유성구 신동 전경.

교육과학기술부는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을 설치해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의 허브로 구축하고, 3개 기능지구에는 학·연·산을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거점연구 성과가 비즈니스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연구성과, 비즈니스로 연계 '선순환 구조' 완성

기초과학연구원은 본원과 캠퍼스, 외부연구단으로 구성된다. 본원 연구본부는 순수 기초과학연구와 중이온가속기 관련 연구를 주로 담당하며 캠퍼스는 ▲대전 대덕특구 ▲대구–울산–포항 ▲광주 등 크게 3개 지역별로 특화돼 운영된다.

대전 대덕특구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KAIST연합캠퍼스'는 KAIST와 대덕단지의 정부출자 연구소 등을 결집해 약 10개 연구단이 참여한다.

대구–울산–포항 지역에 들어서는 'D.U.P연합캠퍼스'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기대(UNIST), 포스텍(POSTECH) 등이 결집하는 새로운 연구개발 클러스터로 연합캠퍼스를 건설하고 10개 가량 연구단이 참여하게 된다.

광주 지역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중심으로 약 5개 연구단이 참여한다. 외부연구단은 전국 대학 및 출연연 등 10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특구가 최종 결정되고 지역별 캠퍼스가 선정된 것은 과학벨

트위원회 산하 입지평가위원회의 정밀한 평가에 따른 것이다.

입지평가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과학벨트 부지 조사를 하며 후보지를 좁혀 왔으며, 5월 16일 지질·재해 전문가 조사단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최종 후보로 오른 5곳을 평가한 결과 최종 평가점수는 신동·둔곡 지구가 7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대구(64.99점), 광주(64.58점), 포항(62.75점), 부산(62.40점) 순으로 도출됐다.

과학벨트위원회는 또 과학벨트 조성에 필요한 전체 예산으로 5조2천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정부가 마련한 과학벨트 종합계획안의 3조5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2조3천억원은 대전을 비롯한 거점·기능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KAIST연합캠퍼스·중이온가속기 등에 지원된다. 경북권의 'D.U.P연합캠퍼스'와 '광주GIST캠퍼스'에는 각각 1조5천억원, 6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전국의 외부 연구단에도 8천억원이 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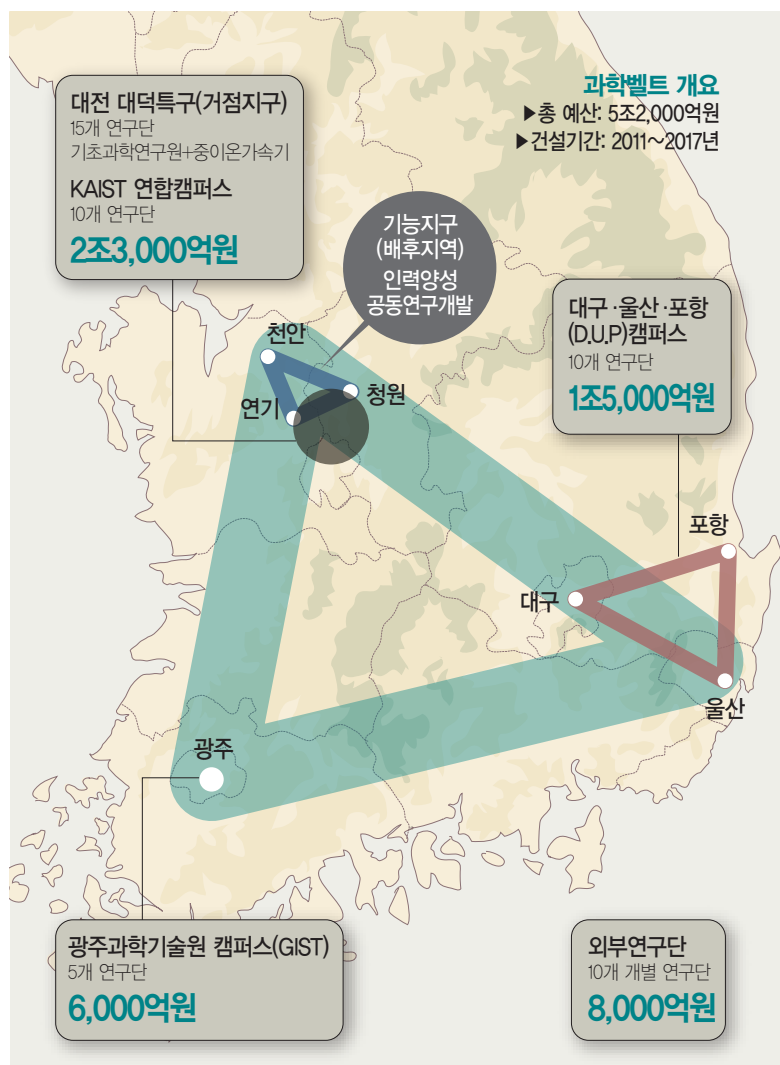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어떻게 건설되나

3천여 개의 이공계 고급 일자리 창출 예상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장과 연구인력은 국내외 최우수 과학자로 구성해 인력과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과학벨트 사업은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수한 젊은 과학자들의 해외유출과 세계 각국의 치열한 두뇌확보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과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내 기능지구의 '미니 과학벨트', 그리고 대구—울산—포항권, 광주권까지 연결되는 거대 삼각형의 과학벨트는 세계 우수 과학기술자들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며 3천여 개의 이공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벨트 입지선정 다음 날인 5월 17일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와 관련,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로 선정된 대덕과 대구·광주 연구개발특구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AIST 개교 4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 참석, "21세기 융합의 시대를 맞아 과학벨트는 개방과 융합의 전초기지이자 원천기술의 산실로서 산업화를 넘어 선진화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과학자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돼야 한다"며 "그럴 때 과학벨트는 우리를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시키고, 나아가 인류를 위해 크게 기여하는 '꿈의 벨트'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사업 분산·중복… 시너지효과 극대화해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활용 통해 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보해야

이명박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약 3년 동안 국토발전을 이끄는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신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관련법 개정이나 관련 조직 구성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 사업을 비롯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개선이 요청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 중앙과 지역 차원의 추진조직 구성,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등 각종 계획에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 사업은 지역발전정책을 넘어서 국가 전체를 균형있게 재구성하는 사업이므로 신중하게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사업은 광역경제권 내의 각종 연구, 사업, 평가 등이 부처별, 시·도별, 기관별로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통합 내지는 재편이 요청된다.

이를테면 정부는 광역경제권 사업에서 연계·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광역경제권 내 시·도 산하의 연구원, 테크노파크, 광역선도산업지원단, 광역권인력양성센터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이 각기 별도로 운영되면서 연계·협력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의 각종 연구, 사업, 평가 등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조선DB

광양항은 동북아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중앙과 지역(광역경제권) 추진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앙 차원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역 차원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각종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 권한과 집행력이 부족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전조정·집행력 부족으로 기대에 부응 못 해

단기적으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경우 지역발전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조정기능 확대와 지역 간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사전 심의권과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경우 광역경제권 내 시·도의 사업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사업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확충이 요구된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위원회 제도 자체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정책 조정기능과 집행력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기구 개편이 필요하다. 즉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처나 프랑스 DATAR(범부처 지역정책전담기구로 1963년에 설치하여 약 50년 동안 지역발전정책을 전담하고 있음)과 같이 개편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특수공법인이나 광역경제권 단위의 통합지역정부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업을 나눠 먹기 식으로 하고, 광역산업단 프로젝트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추진되면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제한됐다. 광역경제권

조선DB

대덕연구단지는 충남권 실리콘밸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선도산업은 2년 단위의 단기적 차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존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인재양성, 커리큘럼 등)와 인프라 구축,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제고 등이 요청된다.

포괄보조금의 운영 및 사업 평가, 특별회계 통합 등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과 자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괄보조금 비중 확대로 투자의 실제 효과 높여야

그러나 포괄보조금의 비중이 작아 실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회계, 기금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일원화 및 유사사업 회계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시·도와 시·군·구의 포괄보조(내역)사업별 서면평가를 할 때 시·도의 의견서, 사업실적 보고 등을 토대로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견은 평가기준, 방법 및 결과의 환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형식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적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 평가의 실효성이 약하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에 대해 단순히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비율(10~20퍼센트 내외)의 우수사업과 미흡한 사업의 선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평가기준과 방법을 수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사업이 과연 제대로 구현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나 투자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계획 및 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G

글·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의 바뀐 노사문화, 외국이 먼저 안다

노동갈등 지수 OECD 30국 중 14위… 국가경쟁력은 59개국 중 22위로 상승

노사관계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면 극단적인 경우 기업이 문을 닫기도 한다. 반면 협력적이면 경영혁신의 엔진이 된다. 노사협력으로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면 국가의 역량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노조도 증가하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스위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59개국 중에서 22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1997년 시작된 조사 이후 최고 순위다.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지수 순위는 2008년 31위에서 2009년 27위, 2010년 23위, 2011년 22위로 3년 연속 상승했다.

더욱 환영할 만한 것은 노사관계 부문의 성장이었다. 이 부문에서 한국은 2010년 56위에서 53위로 3단계 올라섰다. 중요한 것은 순위보다 점수다. 전년 3.72점에서 4.65점으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IMD 노사관계 평가는 국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되기 때문에 점수가 올랐다는 것은 기업인들이 노사관계 안정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며 "점수가 조금만 더 오르면 순위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노사분규 1백21건… 전년보다 28.9퍼센트 줄어

한국의 노사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노사분규는 모두 86건으로 전년 1백21건에 비해 28.9퍼센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근로손실일수도 줄고 있다.

2000년 1백89만4천일이던 것이 2004년 1백19만9천일, 2008년 80만9천일, 2010년 51만1천일로 매년 짧아지고 있다. 2009년 한국과 미국, 일본이 객관적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공동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갈등지수는 OECD 30개국 가운데 14위로 IMD 조사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조선DB

GS칼텍스는 2005년 '노사헌장'을 선언하는 등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있었던 2011년 임금 위임 및 단체협약 조인식.

대립과 대결에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노사협력선언을 하는 사업장이 증가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7백49개였던 노사협력선언 사업장은 2008년 2천5백74개, 2009년 2천6백72개, 2010년 4천12개로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불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사업장에서 노사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주목된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대립에서 협력으로 노사관계를 전환한 후 경영실적이 크게 향상된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현재 고도화 설비비율 업계 1위, 단일공장 기준 세계 4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지난해 전년에 비해 매출은 26.5퍼센트 불어난 35조3천억원, 영업이익은 60.3퍼센트 증가한 1조2천억원을 달성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이야 남부럽지 않은 성장가를 부르고 있지만 2004년만 해도 사정은 완전히 달랐다. 정유업계 최초로 파업이 발생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20여 일간의 파업으로 3천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그 여파로 업계 순위도 2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 선언 기업도 빠르게 확산

2004년의 파업사태는 결과적으로 약이 됐다. 노사갈등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사협력을 통해 건강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GS칼텍스의 노사는 2005년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상생' 비전을 수립하고 '노사헌장'을 제정했다. 그 후 노사는 직급과 승진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혁신을 전개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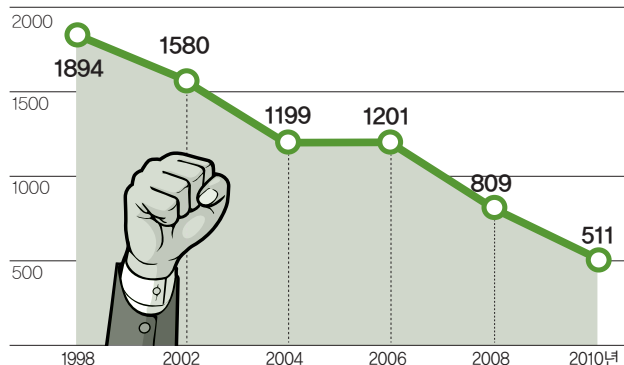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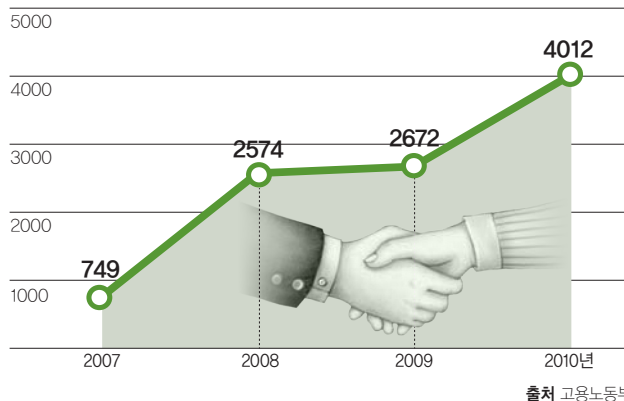
노사협력의 결과물은 기대 이상이었다. 엔지니어만 참여하던 6시그마(품질혁신과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운동)에 노사가 적극 동참하면서 2009년 한 해에만 8백억원 이상의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일터 혁신 경진대회 컨퍼런스'에서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협력적인 노사관계는 앞으로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안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입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외의 전임자는 노조 스스로 급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의 과도한 노조 전임자 지원이 노조 간부의 특권화와 권력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노사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대상기업의 87.4퍼센트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근로손실일수 (단위: 천일)

노사협력 선언 사업장

출처 고용노동부

99퍼센트가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도입 기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복수노조제도도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설립돼 상호 경쟁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가속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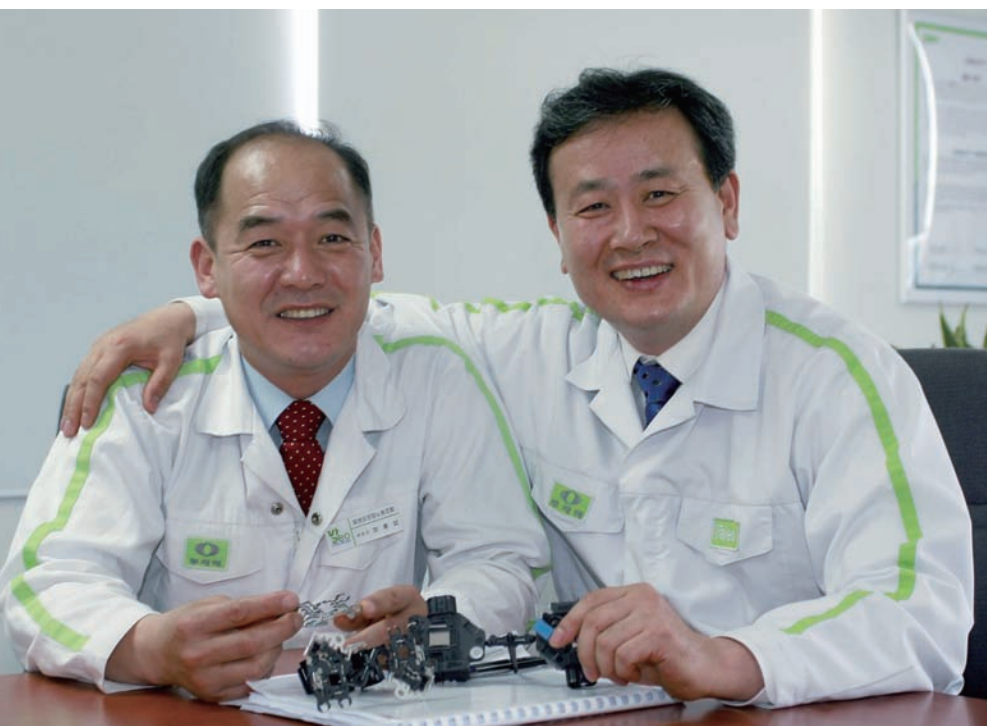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된 사업장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넘어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야겠다는 노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한 LG전자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현대중공업, 호남석유화학,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사가 힘을 모아 더 큰 성과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G 글·변형주 기자

투쟁 깃발 내리고 최대 흑자 올리고

2009년 회사청산 직전에 노조 상생 전환… 2년 연속 적자 벗어나

경북 경주의 자동차부품 회사인 발레오전장은 가장 모범적인 노사 상생 사업장으로 꼽힌다. 노사의 평화는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노사의 전쟁터와도 같았다. 발레오전장 노사의 기적 같은 스토리는 바람직한 노사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조선DB

발레오전장은 대표적인 노사 상생 우수사업장으로 꼽힌다. 정홍섭 노조위원장(왼쪽)과 강기봉 사장이 발전기 제어장치 부품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 5월 30일 경주 용강동의 발레오전장에 들어서는 순간 '청산 결정까지 내려졌던 발레오전장, 90억원 법인세, 10억원의 지방세를 내는 경주 최대 사업장'이라 적힌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해 금속노조가 1백11일간 이 회사 정문 앞을 에워싸며 붉게 물들였던 투쟁 깃발과 구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스타터 모터와 교류발전기 등 주력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강기봉(53) 사장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천년 문화고도 경주는 발레오전장의 노사문제 하나로 금속노조의 투쟁 깃발이 나부끼는 노동운동 격전장이나 다름없었다"면서 "이런 대립적 분위기를 노조 스스로 바꿔 생산성 향상에 나서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정홍섭(47) 노조위원장은 생산라인을 일일이 돌며 불량품이 없는지 챙기고 있었다.

정 위원장은 "유성기업 사태를 보면서 지난해 발레오전장을 떠올렸다"면서 "노사문제에 3자가 개입하면 잘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기 마련인 만큼 노사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조언했다.

발레오전장은 1999년 프랑스 발레오사가 만도기계 경주공장을 인수해 설립한 이후부터 노조와 심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노사문제에 3자 개입하면 자칫 상황 악화"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시마다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7일까지 파업을 벌이는 등 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 최강성 노조로 맹위를 떨쳤다.

2009년 3월 이 회사 대표로 취임한 강기봉 사장도 출근 첫날부터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대개 취임 첫날은 노사 간에 덕담이 오가는 게 상식이지만 강 사장은 '출근거부 투쟁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는 노조간부의 인사말 아닌 인사말을 들어야 했다.

당시 회사는 조합원 6백5명의 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의 최강성 노조답게 노조천국이나 다름없었다. 회사 내 비정규직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경비원도 노조에 가입했다. 직원들의 연평균 임금은 7천만원을 웃돌 정도였다. 임금 수준이 이런데도 노조는 해마

다 파업을 벌였다. 당시 회사는 2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결국 발레오전장은 본사로부터 경주공장 직원 중 최소 50명을 구조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강 사장은 노조와 한국적 직장문화를 아는 현지인 사장으로서 인력을 자르는 구조조정보다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청소와 경비, 운전직을 외주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런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다. 경영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를 보다 못한 강 사장은 지난해 2월 생산직 전환에 거부하는 경비직 5명의 외주화를 다시 밀어붙였고, 노조는 이에 맞서 또다시 파업을 단행했다. 노조 파업이 사무관리직의 생산현장 대체 근로 방해와 조립라인 배선 절단 등의 극한 행동으로까지 확산되자 강 사장은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조선DB

정홍섭 노조위원장은 최고의 복지는 고용안정이라고 강조한다. 정 위원장이 생산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제품 불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강 사장은 "이전에는 발레오전장의 부품을 공급받는 현대자동차의 조업차질을 우려해 노조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주었지만 이렇게 밀리다가는 회사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노조원들, 강경투쟁 집행부 투표로 쫓아내

회사의 직장폐쇄 조치에 조합원 15만명의 금속노조가 전국 산하 단위 노조 간부들을 경주에 총집결시키며 연대파업에 나서는 상황으로 이어지자 발레오전장은 경주공장에 대한 철수방침까지 내렸다. 이에 반발해 시내 곳곳에서는 강 사장의 얼굴을 본뜬 인형을 불태우는 화형식 시위도 전개됐다.

하지만 강 사장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공장 정상가동에 온 열정을 쏟아 부었다. 전체 생산인력의 절반가량을 투입해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산실적을 오히려 20퍼센트나 증대시켰다. 공장이 이렇게 잘 돌아가자 일반 조합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해 직장폐쇄 93일째인 5월 19일 일반 조합원의 절대다수(95.2퍼센트)가 강경투쟁만 고집하는 노조집행부를 투표로 쫓아내고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강 사장은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의 노사 협상에 개입한 이후부터 1백원이라도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서는 협상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견뎌온 이유는 바로 이런 무소불위의 노조 권력으로부터 발레오전장의 노사협상의 자주권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라고 소회를 털어놨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발레오전장은 국내 대표적인 노사 상생사업장으로 거듭났고 다른 사업장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월 30일 제6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대립에서 상생으로 전환한 후 실적이 크게 개선된 발레오전장에 박수를 보냈을 정도다.

이 대통령은 "회사가 적자와 상습파업으로 국내 공장 문을 닫고 철수하기로 했을 때 노조가 극적으로 상생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결과 작년 매출이 직전 3년 평균치보다 36% 늘었고, 순익도 2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 창사 이래 최대인 4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노사관계 악화로 공권력이 투입된 유성기업 사태를 언급하면서 "크게 엇갈린 두 기업의 사례가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파업하고, 기업 문 닫고, 최악의 사태를 겪은 다음에야 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을 깨닫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협상을 회사 측에 위임한 정홍섭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직장폐쇄와 불법파업이란 값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야 최고의 복지가 바로 고용안정임을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만일 회사가 없어지면 노조가 투쟁을 해 이겨본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를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하인식 (한국경제 사회부 기자)

"파업이라니요?"… 상생 위해 '똘똘' 뭉쳐

2년 연속 무분규로 올 임금협상 타결… 문제 노사서 모범 노사로

조선DB

쌍용차 노사는 2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에 성공하는 등 대결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의 관계를 다지고 있다. 김규한 노조위원장(왼쪽)과 이유일 사장은 임금협상 조인식을 마치고 노사화합을 다짐했다.

노사가 화합해 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와 지역사회까지 더불어 성장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노조가 발전적 노사관계를 지향하고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5월 26일 '2011 임금협상 조인식' 및 '클린쌍용 확약문',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문'에 대한 서약식을 가졌다. 이 회사의 노사는 지난 4월 19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9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8일 임금협상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63.8퍼센트의 찬성률로 협상안을 가결시켰다. 국내 완성차 업체 최초로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은 것이다. 노사는 이번 합의안 도출에 대해 쌍용차 임단협 사상 '최단 시간 합의'라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쌍용차 노사는 클린쌍용 확약문 서약식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과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회사가 생존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투명한 경영윤리 정착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에 노사가 공감한 것이다.

노사 '클린쌍용 확약' 서약… 투명경영 선언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 청탁 및 우월적 지위 남용 근절, 절차와 기준 준수, 노사 공식조직 활성화 및 육성, 회사 규범 및 보안규정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문'에는 노사관계 선진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장학회 설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활동의 성과를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동반 성장한다는 목표다.

쌍용차가 소모적 파업을 배제하고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2009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해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조가 기존의 특권의식을 과감히 떨쳐내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쌍용차는 2009년 이후 2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자동차 업계와 산업 전반에 합리적 노사관계의 모범 사례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큰 갈등을 겪은 뒤에 적극적으로 노사상생 프로젝트를 실천해 왔다. 선진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며 생산성과 사회공헌을 고려하는 새로운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즉,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지역사회로 활동범위를 넓히겠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유일 사장은 "임금협상의 조기 타결은 조속한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임직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선진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에 힘을 써 노사 상생이 우선시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

글 · 장시형 (이코노미플러스 기자)

나눔의 노조… '사회적 책임'도 수행

협력업체 · 지역사회에까지 회사의 울타리 넓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캄보디아 잔소(Chan Sor) 지역의 트놀마을과 껀사인러마을의 1천여 주민 중에 LG전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냉장고나 에어컨, 휴대전화 때문이 아니다.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우물, 공동화장실, 마을회관을 볼 때마다 LG전자를 떠올린다. 이 시설들은 모두 지난 4월 LG전자 노조와 사무직 사원대표 협의체(DB·Digital Board) 회원들이 지어준 것들이다.

LG전자 노조는 지난해 1월 국내기업 최초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했다. 자신들의 이익만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선언 이후 LG전자 노조는 사회, 경제, 환경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활동 범위는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캄보디아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해외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LG전자 노조가 마련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네 가지 실천지침'에 이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노조상이 엿보인다. 노조가 밝힌 네 가지 지침은 생명공동체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윤리경영·투명경영을 촉진하며, 업무현장의 경영혁신을 주도하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또 노조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환경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전거타기 생활화, 나무심기, 하천정화운동 등을 진행했다.

급여의 1천원 미만 잔돈 모아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측면으로는 노조원들의 삶의 질과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공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해소 사업 등을 추진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현장 경영자로서 노조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사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촉진에 적극 나섰다.

LG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 후원, 노조 윤리규범 선포, 아시아·아프리카에서의 'LG희망학교'와 'LG희망마을' 등 빈곤층 구호활동, 아프리카의 질병퇴치를 위한 백신사업 참여, '세계 환경의 날' 맞이 하천정화활동, 일본 대지진 구호기금 및 물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조선DB

LG전자 노조는 국내 최초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고 다양한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임직원들이 안양천에 오염물질을 없애는 '에코볼'을 던지는 행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노조가 사회봉사활동을 펼치는 데는 회사 예산이 아닌 임직원 급·상여의 1천원 미만 잔돈을 공제해 만든 '우수리 기금'이 쓰이고 있다. 현재 3만여 임직원이 참여해 매월 1천3백만원 이상의 '우수리 기금'이 적립되고 있다. 노조는 이 돈으로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교복 구입비용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993년부터 '노사' 대신 '노경'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사'가 가진 대립적이고 수직적인 의미를 벗어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근로자)와 경(경영자)이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함께 가치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이를 증명하듯 LG전자와 노동조합은 1990년부터 22년간 무분규를 이어올 정도로 굳건한 신뢰관계를 보여줬다.

배상호 LG전자 노조위원장은 "생산성 향상과 조합원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조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조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장시형 (이코노미플러스 기자)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 성숙… 복수노조 연착륙할 것”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이 산업현장에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노사분규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도입한 근로시간면제 제도도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는 7월 1일에는 복수노조제도가 실시된다. 이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함께 나오고 있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에게 우리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물었다.

한용환 기자

5월은 전통적으로 노동운동의 달이다. 유명한 ‘메이데이’가 5월 1일이다. 국내에서도 ‘춘투’라 불리는 대립적인 노사갈등이 이 무렵에 벌어졌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춘투’라는 단어를 듣기 어려워졌다. 노사분규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최근 유성기업의 불법파업으로 일반인이나 외국인의 눈엔 아직도 우리의 노사관계가 극한적인 대립구도로 비칠 수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OECD 평균보다 오히려 적을 정도로 우리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전 정책관은 노사관계가 더욱 안정되고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들이 무리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복수노조제도도 연착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만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대뿐 아니라 근로생활의 질이 향상됩니다.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다면 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만큼 해당 사업장은 더 좋은 일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노조들은 근로자들에게 평가받고 근로자들을 위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사관계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수노조가 난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1년 안에 복수노조가 설립될 사업장은 전체의 7~14퍼센트 정도에 그칩니다. 경총도 11퍼센트로 예상합니다.

복수의 노조와 교섭을 해서 한 사업장에 여러 종류의 단체협약

이 시행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등 법적 장치를 두고 있어 우려하는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노조는 여러 개 설립되더라도 사용자와 교섭할 노동조합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노조는 협의를 통해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의 노조 설립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되고 근로조건도 통일됩니다. 노조들의 과도한 세력다툼과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도 시행 1년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지난 5월말 현재 대상사업장의 89퍼센트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99퍼센트가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있으니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법준수율이 99%에 이른다지만 이면합의 등 편법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제도가 더욱 뿌리를 내리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사가 이면합의를 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이면합의 여부도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면합의가 발견되면 단체협약 시정명령,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불과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 전임자 급여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실질적으로 복수노조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현행 노조법은 무려 13년이나 미루어오던 것을 노사정 합의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어렵게 개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노조법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법의 재개정이 아니라 개정법의 연착륙을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행 노조법은 13년만에 어렵게 개정한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개정법의 연착륙을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는 일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란 분규가 사라진 수준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노사관계, 선진화된 노사관계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단순히 분규가 사라진 안정적인 노사관계라는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 확산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축적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숙하고 있다고 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노사분규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노사분규는 86건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노사관계가 과거의 대립과 대결구도에서 협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역량이라면 노사상생을 통해 성과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진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사 양측에 무엇을 당부하시겠습니까.

"먼저 복수노조제도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노사관계 선진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불법적인 피케팅이나 공격적인 직장폐쇄 등 불합리한 노사관행은 자율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의 상생을 위해 참여와 신뢰의 노사관계가 자리매김하도록 양보의 미덕도 발휘해 주십시오. 노측은 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사측은 근로자를 경영의 파트너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과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일을 통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

글 · 변형주 기자

증조부의 나라 찾은 미 국무부 부차관보 제니퍼 박 스타우트

"워싱턴서 자라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

증손녀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증조부가 꿈에 그리던 나라로 훌쩍 커 있었다. 제니퍼 박 스타우트(한국명 박지영·35). 미 국무부 부차관보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공외교 전략을 담당하는 그가 지난 5월 16일부터 나흘간 미국 외교관 자격으로 '혈육의 나라'를 찾았다.

서울신문

제니퍼 박 스타우트 부차관보는 "워싱턴 DC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자연스레 정치와 정책에 관심을 품었다"고 한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부차관보로 임명된 뒤 첫 방한이다. 그의 증조부는 상해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지낸 백암 박은식(1859~1925년) 선생이고 할아버지는 광복회장을 지낸 항일무장투사 박시창 장군이다. 국무부 내 가장 젊은 부차관보 중 한 명인 그는 "증조할아버지의 영향 덕에 정치·외교에 대한 관심이 내 핏속에 녹아 흐르는 듯하다"며 밝게 웃었다.

스타우트 부차관보는 1976년 '세계 정치의 수도'격인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이자 박시창 장군의 둘째 아들인 박유종(72)씨가 유학길에 올랐다가 미국에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어머니 역시 한국인이다.

박은식 임시정부 대통령의 증손녀

백악관과 의회를 늘 볼 수 있는 워싱턴 DC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자연스레 정부와 정치,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을 품었다고 한다.

스타우트 부차관보가 국가 운영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 모른다. 그는 "부모님이 '너의 친지들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관직에 있거나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너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의 아버지는 조국이 일제 강점기에 놓였던 1937년 중국에서 태어나 떠돌았던 '디아스포라'였다. 스타우트 부차관보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한국을 찾을 때 증조할아버지가 잠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자주 들렀다고 한다.

스타우트 부차관보의 말처럼 그의 혈육에는 '정치의 피'가 흐르는 듯했다. 증조부 외에 큰아버지인 박유철(73) 광복회장 내정자 역시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박 내정자는 "지영이(스타우트 부차관보)가 어려서부터 영특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귀띔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 때문인지 스타우트 부차관보는 정치와 외교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제임스 메디슨대를 졸업한 뒤 조지 워싱턴대 엘리어트 스쿨에서 국제관계를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곧장 미 연방 의회 보좌진으로 일하며 실력을 키웠다.

조 바이든 현 부통령이 상원의원으로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그를 도왔고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인 짐 웹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제임스 모란 상원의원을 보좌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뒤 정무직인 부차관보 자리에 오른 그는 성김 북핵 특사와 조셉 윤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등과 함께 미 국무부 내 핵심 한국계 인사로 꼽힌다.

미 행정부의 동아태 지역 원조 전략을 책임지는 스타우트 부차관보는 해당 지역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미국 정부의 입장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선DB

국립묘지에 안장된 백암 박은식 선생. 제니퍼 박 스타우트 부차관보는 상해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었던 백암 박은식 선생의 증손녀다.

'소프트파워'(정보와 문화, 예술 등을 앞세운 영향력)를 유독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책임이 분명하다. 30대 중반의 아시아계 여성이 미국 주류사회의 심장부에 파고들며 느꼈을 고충이 컸을 듯해 어려움은 없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한국은 공공외교 정책에 있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상황이다. 공공외교의 핵심은 국제사회가 한국에 바라는 지원을 해서 마음을 사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를 타국에 전수한다면 국가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저개발국 교육과 문화 전수에 힘써야"

스타우트 부차관보는 "한국계로서 불리한 점은 전혀 없었다"며 "(서양계 외교관보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와 가치, 국민을 이해하는 데 수월해 이점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순히 한국뿐 아니라 동아태 전 지역에 관심이 많고 의회생활을 할 때부터 이 지역에 초점을 맞춰 일했다"고 강조했다.

어린 나이 또한 상대국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임무로 삼는 그에게 장점이라고 한다. 젊고 소탈한 성격 덕에 타국의 대학생을 만나 얘기하기가 수월하다.

또 "젊은이의 소통 도구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활용에도 능숙해 그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정보를 얻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흘간의 짧은 일정 동안에도 육군사관학교와 주한 미 대사관 한국 청년 모임 등을 찾아 의견을 듣는 등 분주하게 보냈다.

스타우트 부차관보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을 위해서도 조언을 잊지 않았다. 핵심은 "국제사회가 한국에 바라는 지원을 해 마음을 사라"는 것.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를 타국에 전수한다면 국가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가진 교육 시스템에 대한 명성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국제장학프로그램)이 공공외교를 시작하는 한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모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고기'를 주는 대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방식의 개발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데 대해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 모델에 관심 갖는 국가가 많을 듯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프로그램이 국가와 국가 간 교류에 머물지 않고 우리 전문가와 해당국 국민 간 직접 소통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공공외교의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

글·유대근 기자 (서울신문 국제부)

서태옥 사무관의 페이스북 화면.

전하억 사무관의 페이스북 화면.

트위터 날리고 페북으로 소통

'SNS 활용 우수 공무원'에 뽑힌 서태옥·전하억 사무관, 임해성 주무관

지난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지만 뜻깊은 시상식이 열렸다. 'SNS 활용 우수 공무원 선발'이 바로 그것이다. 수상자는 서태옥 사무관, 전하억 사무관, 임해성 주무관 등 3명이다.

웹2.0 시대에 걸맞은 공무원들의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시행한 'SNS 활용 우수 공무원 선발' 수상자로 서태옥 사무관(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 전하억 사무관(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임해성 주무관(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총괄과) 등 3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각 부처를 대표하는 SNS의 달인들인 만큼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 정책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한 'SNS 활용 우수 공무원 선발' 정책에는 그동안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 온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달라진 소통 기반에 발맞춰 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이 일방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발맞춰 나가는 쌍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다. 디지털 시대 쌍방향 소통의 해답으로 찾은 것이 바로 SNS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다.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맺는 관계'를 뜻한다. 불특정 다수와의 '온라인 인맥 구축'을 가능하게 해 주는 SNS는 무서운 속도로 뿌리내리고 있으며, 전 세계 15억 사용자와 함께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SNS는 초기의 단순한 친목 도모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1인 미디어'로서의 기능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웹2.0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소통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블로그 누적 방문 44만명 달하기도

'친근한 정부,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정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에 언제든 답해 줄 수 있는 정부'를 알리는 데 적합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는 생활 속에서 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책 전달자의 역할도 해내고 있는 공무원들을 발굴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정책 고객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일선 공무원들이야말로 '소통의 달인'들이기 때문이다.

서태옥 사무관은 블로그(http://socialworker.co.kr/mohw, 2007년 2월 개설),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arimtown, 2009년 4월 개설), 트위터(http://twitter.com/

임해성 주무관의 트위터 화면.

arimtown, 2009년 12월 개설) 등 다양한 SNS를 운영하고 있다. 블로그의 경우 총 포스팅 5백14회, 누적 방문자 수 44만명에 이르며 국내에 SNS 붐이 일기 전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개설했다.

부처 직원과 유관기관, 국회의원과 전문가 등 각계 다양한 인사로 이루어진 페이스북 친구 3천6백83명, 트위터 팔로워 2천6백32명과 주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서 사무관 SNS의 가장 큰 강점은 소소하면서도 깊이 있는 삶의 단상으로, 많은 이들과 감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열린 소통의 모범을 보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전하억 사무관, 임해성 주무관, 서태옥 사무관(왼쪽부터).

페이스북에 '통일의 관문 남북출입사무소 사랑방'을 열어 운영하고 있는 임해성 주무관의 주된 SNS는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haeog, 2010년 3월 개설)과 트위터(http://twitter.com/zeus_007, 2010년 4월 개설)이다. 현재 트위터 팔로워 4천4백13명, 팔로잉 4천3백22, 트윗수 2천1백49개를 기록하고 있다. 부처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남북관계 소식과 정부의 통일 노력 등으로 이웃들을 만나고 있어, 남북출입사무소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강살리기사업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전하억 사무관은 트위터(http://twitter.com/HaEokJ, 2010년 7월 개설)와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haeog, 2010년 7월 개설)을 통해 4대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많은 이와 나누고 있다. 4대강변의 풍경 사진과 함께 변화하는 4대강 사업의 생생한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여행 정보와 다양한 생활 속 단상들을 문학적 표현으로 전달해 많은 이의 공감을 얻고 있다. 트위터 팔로워 4천5백36명, 트윗수 6천5백17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댓글 달기와 리트윗을 통해 쌍방향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끊임없는 노력·솔직함이 공통적인 무기

이들 '소통의 달인'이 보여주는 가장 큰 공통점은 '꾸준함'과 '열린 마음'이다. 서태옥 사무관은 매일 1회 이상 SNS의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며 공유하고픈 좋은 글귀를 찾는 노력을 한다. 또한 사회복지 사무관의 전문성을 살려 블로그에 복지 관련 정보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임해성 주무관은 SNS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우는 공간'으로 생각한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만이 성숙한 SNS가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임 주무관의 신념이다.

전하억 사무관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마음가짐으로 SNS를 운영하고 있다. 감추거나 숨지 않고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자기 절제를 할 수 있고, 그만큼 다른 이들과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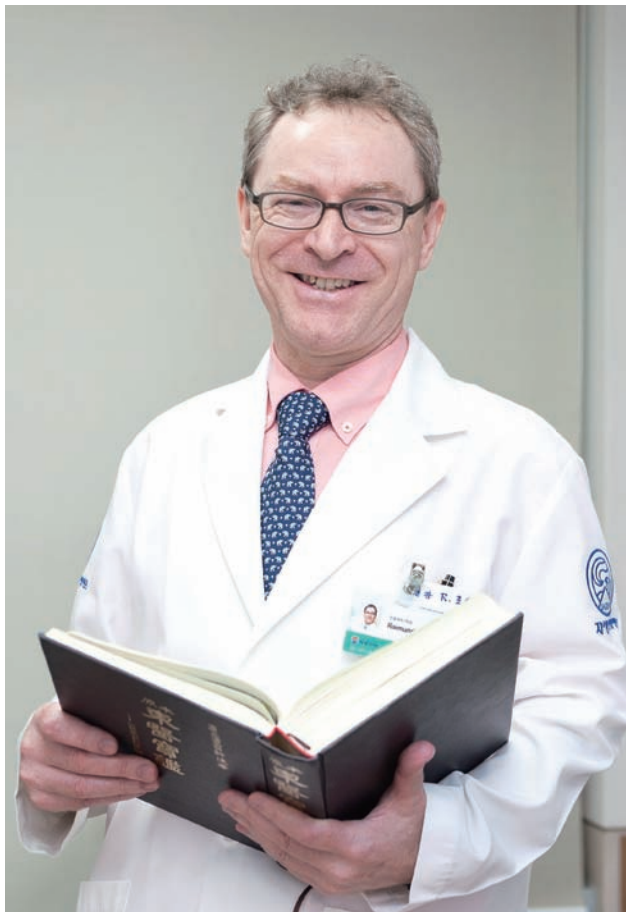
이들은 한결같은 바람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소통의 장을 꿈꾸고 있다. 정부 부처 곳곳에 더욱 많은 소통의 달인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G

글 · 전미영 객원기자

외국인 한의사 고바야시·로이어 원장 한국관광홍보대사로

“한방도 이제 의료관광객 유치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일본과 오스트리아 출신 한의사 두 명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들 외국인 한의사들은 앞으로 우리 한의학을 외국에 홍보하는 일을 맡게 됐다. 외국인 한의사를 통해 나라 안팎에 우리 한의학을 알림으로써 외국인들이 보다 친근하게 한의학에 다가서고, 한의학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정은주 기자

자생한방병원의 로이어 국제진료센터 원장은 서양의사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실험과 임상을 통해 축적한 한의학 효능 결과를 외국 학술지와 세미나를 이용, 꾸준히 발표해 왔다.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두 명의 외국인 한의사가 지난 5월 18일 한국관광공사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일본계 고바야시 미치이 아젤리아 한의원 원장과 오스트리아 출신의 라이문트 로이어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며 같은 외국인의 눈높이에서 한의학을 알려온 이 둘은 위촉식에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한방 의료 관광’ 홍보에 본격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였다. 두 홍보대사는 서로 개성은 달랐지만 한의학에 대한 자부심은 같았다.

라이문트 로이어 원장은 ‘최초의 서양인 한의사’다. 그는 1999년 한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당시 “서양인이 어려운 한의사 시험을 통과했다”며 화제가 됐다. 그 후 분당차한방병원 수련의 과정을 거쳐 개원의로 활동하다 2006년 7월부터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84년, 99년 각각 한의사 국가고시 통과

로이어 원장은 대한한의사협의회 국제이사, 대한약침학회 국제이사를 맡아 한의학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 왔다. 양·한방 협진 척추질환 전문병원인 자생한방병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방병원 중 하나다.

로이어 원장이 한의학과 인연을 맺은 건 태권도를 배우다 맛들인 침 때문이다. 1987년 동양문화를 알고 싶어 한국을 찾은 로이어 원장은 태권도를 배우던 중 발목을 삐끗했다.

주변 사람들이 “삔 데는 침을 맞아야 한다”며 그를 동네 한의원으로 데리고 갔다. 로이어 원장은 “당시에 한의사가 아픈 발목은 놔두고 손과 귀만 바늘로 찔렀다. 뭐하나 싶었는데 잠시 후 통증이 가셨다”고 기억했다. 그 후로 우여곡절 끝에 한의학을 배워 20여 년이 흘렀다.

로이어 원장은 “한의학을 외국에 잘 홍보하려면 중의학(中醫學·중국 전통의학)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2003년 오스트리아에 갔더니 의사들이 침을 놓고 있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침술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유럽시장에서 그만큼 침술의 수요가 커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서구권에서는 이미 '침술=중의학'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어 한의사가 아무리 침을 잘 놓아도 중의학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책으로 로이어 원장은 '과학적 기법과 양·한방 협진'을 한의학의 경쟁력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국제적 수준에 오른 국내 서양의학의 힘을 빌리자는 이야기다.

파인리즈리조트

조선DB

진료 중인 고바야시 원장. 일본인 한의사인 그는 외국인에 적합한 한방 서비스를 발굴해 왔다(왼쪽 사진). 5월 18일 열린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왼쪽부터 로이어 원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고바야시 원장.

신뢰·청결한 이미지로 한의학을 알려야

로이어 원장은 또 "믿을 수 있고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한의학의 경쟁력으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한약재 인증마크제'를 제안했다. 국가가 한약의 품질을 보증하면 국제 한약시장에서 국산 한약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고 이는 한의학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이어 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실제로 10년여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힘이 실린다. 로이어 원장은 "서양의사들은 한의학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체질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한의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료 한의사들과 실험과 임상을 통해 축적한 과학적 결과를 외국 학술지와 세미나에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어 원장은 6월 초 이참 사장과 브라질로 가 세미나와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의학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고바야시 원장은 경희대 한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1984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본인 한의사다. 또 일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화여대 의예과를 이수했다.

미국 각지에서 척추교정(Chiropractic) 전문의들과 함께 여러 국적 사람들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면서 한방적인 예술요법을 고안하기도 한 고바야시 원장은 일본 도쿄에 있는 일심종합병원에서 8년간 양방의사들과 함께 환자치료를 하며 동서의학 통합에도 힘써왔다. 2003년부터 3년간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병원 한방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강원도 고성군의 파인리즈리조트 내 아젤리아 한의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진료한 외국인 의료관광환자만 1만2천여 명이다.

홍보대사 위촉 후 '홍보대사로서 첫 업무 차' 일본을 다녀온 고바야시 원장은 "그 사이 많은 곳에서 전화가 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하지만 제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홍보대사를 당연히 하고 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몰리는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제가 배운 훌륭한 한의학을 온 세계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한동안 한국을 떠난 사이에 한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변한 데 놀랐다.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해 공부해야 되겠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고바야시 원장은 최근에는 한의학과 스파(SPA)를 접목한 한방 테라피, 외국인이 손쉽게 마실 수 있는 한약차, 한방 입욕제 등을 내놓고 해외환자 유치에 애써왔다.

양방 중심 의료관광, 한방과 양·한방 협진으로 확대

한국관광공사가 이들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인 환자들을 진료해 온 외국인 한의사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명예홍보대사 위촉을 신호탄으로 그동안 양방 중심으로 추진되던 외국인 의료관광 사업을 한방, 양·한방 협진으로 확대하고, 전통문화 및 정서 체험과 연결해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코리아 온리(Korea Only)'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의료사업단 주상용 팀장은 "한방 의료관광 상품은 일본 등 아시아와 러시아를 타깃으로 한다. 이들 지역은 중국을 제외하면 침술사만 있을 뿐 한의사는 없는 한방 불모지다"며 "먼저 한방의 과학적 우수성과 전문성을 홍보하며 신뢰를 쌓을 계획이고, 이번 명예홍보대사 위촉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5대륙 39개국 무전여행 안시준씨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기념품은 미소"

'안시준'이란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한 그의 사진을 봤을 때였다. 무전여행으로 세계를 일주한 그의 이야기가 담긴 블로그를 보며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젊은이도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와 만나 인터뷰를 하며 느낀 것은 그의 무전여행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도전의 창조적 준비 단계라는 것이다.

"세상에 나가 무엇을 하든, 세상을 바로 알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게 무전여행이죠."

안시준(26)씨는 '무전여행'이 세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매순간 잠자리,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하니 세상과 뒤엉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며 세상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물론 대학생이라 돈이 없는 것도 한몫했다고 한다. 그는 스무살에 처음 국내 도시를 돌았고, 그다음에는 마을들을 여행했다. 그렇게 2004년 부터 2년간 한국을 다 보고 나니 자연스레 일본으로 발걸음이 향했다. 일본 무전여행에서 이어진 것이 세계일주다. 그는 2009년 6월부터 1년3개월 동안 5대륙 39개 국가를 여행했다.

"처음 여행을 시작한 순간부터 일본 여행까지는 하루 일하고 하루 얻어먹었어요. 하지만 그다음 미주 대륙으로 넘어간 후에는 하루 일하고 하루 얻어먹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미주 지역 사람들은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노동을 우습게 본다고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임시직으로 일을 해도 항시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한 대학 선배의 도움으로 필리핀에서 일을 해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캐나다를 향한 도전의 바탕이 됐다.

스스로를 '쾌남자'로 칭하는 안시준은

소속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개인미디어 kennamja1@naver.com / kennamja1.blog.me
facebook.com/kennamja

위험한 순간마다 최선 다해 판단하고 바로 행동

"캐나다에 도착해 고물차를 사 차에서 생활하며 미국까지 여행했어요. 여행 도중 돈이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국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죠. 한번은 친한 친구에게 온라인 채팅을 해서 세계일주 중이라고 했더니 '보이스 피싱' 아니냐 의심하더라고요. 사실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세계일주를 완주하지 못할까 봐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시준씨는 이러한 여정들을 아주 쉬운 듯 말했지만, 정말 고생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저의 특별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준씨는 2010년 있었던 칠레 대지진과 버스 사고, 택시 강도, 축

구 폭동, 집단 사기 등 많은 사건·사고로 위험한 순간들을 겪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삶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별수 있나요. 사건은 벌어졌고 울고불고해 봤자 답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 판단하고 바로 행동에 옮겨야죠. 그러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고 하나둘씩 해결돼 있었어요. 정말 안되겠다 싶으면 어머니가 끓여 주시는 따뜻한 된장국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면 되니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의 하나로 불리는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을 찾은 안시준씨. 이곳을 찾은 한국인들의 행동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소소한 웃음도 상대방과 나를 행복하게"

처음 만나는 나를 앞에 두고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는 시종일관 장난스런 말투에 웃음을 잃지 않았다.

"다녀와서 변한 것들이야 많겠죠. 뭐라고 딱히 잘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여행 도중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소소한 웃음이나 미소, 그 자체가 상대방과 저를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미소를 얻었고, 그 미소는 가장 큰 기념품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이어서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찡그리게 된 일들도 있었어요. 한번은 볼리비아 우유니에서의 일이었어요. 작은 마을 우유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 중 하나인 우유니 사막으로 통하는 출입구인데, 도로가 없는 그 사막을 보기 위해선 주민들의 지프가이드를 받아야 했어요. 주민들 한분 한분 붙잡고 가격을 흥정하는 동안 다들 잘 대해 주셨는데, 제가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들 태도가 돌변하며 전액 선불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더군요."

시준씨는 "알고 보니 계약을 하고서도 아무런 통보 없이 더 나은 조건의 가이드를 찾는 한국인들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전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국가 브랜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돌아와 현재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학생 서포터스로 활동하고 있다.

"저희 세대는 '한국'이라는 국적과 함께 세계로 도전하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성장해선 미국 영화를 접하고, 대학생이 된 후엔 해외 교환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방학 때에는 유럽 여행을 꿈꾸거나 제3국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저희는 분명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가장 많은 도전을 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습관과 행동, 그리고 말 하나하나가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직접 연관된다고 생각해요."

그는 여행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할 일들을 계획하고, 여행에서 얻은 용기들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한국 알릴 기획 갖고 또 한번 세계일주 계획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1년 뒤에는 지금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학생 서포터스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알리는 획기적인 기획을 들고 세계 일주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북미에서는 우리 음식문화를 알리고, 남미에서는 전통 예악을 알리고, 유럽에선 기술력의 홍보를, 그리고 아프리카에선 봉사를, 아시아와 호주에선 '한류'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나하나 풀어 간다면 어느 순간 이뤄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준씨와 마주 있는 동안 그를 통해 '도전'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됐다. 무모하다 할 수도 있는 그의 '도전'은 더 큰 세계를 위한 도약이자 창조적 준비단계였다. G

글·김남호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4년)

지난 5월 28일 샤키예프 장관(왼쪽 사진 가운데)의 제안으로 열린 친선 축구대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선수로 뛴 젊은 장관… 친선의 슛~ 골인!

한국에 온 키르기스스탄의 샤키예프 문화부 장관, 한국외대생들과 축구 경기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는 아름다운 나라, 키르기스스탄의 샤키예프 누를란베크 투르군베코비치 문화정보부 장관이 한국을 찾았다. 서른다섯의 젊은 장관인 그가 한국 젊은이들과 친선 축구경기를 제안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봤다.

이번 샤키예프 장관의 방한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키르기스스탄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샤키예프 장관의 방한을 추진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유목 문화와 토착 문화가 공존하며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보내러 갈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한국에서는 낯선 나라지만 스키를 타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으로 향하는 유럽 여행객들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 알타이 문화권에 속하는 키르기스스탄에 가면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지닌 인심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번에 4박5일 일정으로 내한한 샤키예프 장관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문화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과의 친선 축구대회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재한 키르기스인회 자국팀 열띤 응원

친선 축구대회가 열린 5월 28일 오후 1시. 샤키예프 장관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선수들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키르기스인으로 구성된 'KG TOP FC'와 한국외대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축구동아리 '스빠르딱'이 함께한 이번 친선 축구대회는 전반과 후반 각각 20분씩 미니경기로 진행됐다. 경기 시작 전 축구화의 끈을 조여 매며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표정은 마치 국가대표 선수처럼 비장했다.

양 팀 선수들이 정정당당한 경기를 약속하며 인사를 나눈 뒤 경

기가 시작됐다. 이날 자국팀에서 뛴 샤키예프 장관은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

샤키예프 장관의 활약이 돋보이는 가운데 양 팀이 한 골씩 번갈아 넣으며 흥미진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반칙이나 다툼 없이 페어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친선경기의 의미가 더욱 돋보였다. 전반전이 끝나고 주어진 짧은 휴식시간. 선수들은 준비된 음료를 마시며 전략을 수정했다. 그 와중에도 상대팀과 웃음을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경기 분위기를 흥겹게 한 일등공신은 키르기스스탄팀을 응원하러 온 재한 키르기스인회였다. 호루라기와 응원수건, 깃발 등 만반의 준비를 해온 재한 키르기스인회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응원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교체된 선수가 자리로 돌아오면 팀과 상관없이 음료수를 건네고 땀도 닦아주는 훈훈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치열한 접전 끝에 경기는 5대 3, '스빠르딱'의 승리로 끝났다. 키르기스스탄 선수들은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훌훌 털고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경기 후 선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유니폼을 교환하는 모습에서 '말이 아닌 몸으로 통(通)함'이 느껴졌다.

이날 경기에 참석한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지상훈 학생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기 쉽지 않은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며 "키르기스스탄팀과 선의의 경기를 하게 되어 즐거웠고 장관님과 함께 해서 더 의미 있는 시합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장관님과 식사도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샤키예프 장관은 "2012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수교 20주년을 맞이해 내년 8월에 한국에서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그때 우리 키르기스스탄의 많은 젊은이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이 축제라는 문화를 통해 아시아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 8월 한국에서 수교 20주년 축제

그는 또 "이런 교류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가까워져 문화적으로도 소통을 나눌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앞으로 아시아를 지도할 젊은이들이 장차 지도자로서 성공하고 멋지게 나아가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경기는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아시아인'이라는 공통점을 넘어서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방한이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양국 협력 관계의 내실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의 문화가 한국에 소개되고 키르기스스탄이 우리에게 보다 친근한 나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G

글과 사진 · 이자은 (중앙대 사진학과 4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은 참신한 시각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이슈, 정책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현재 6기 10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의 열정 넘치는 이야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블로그 도란도란문화놀이터(culturenori.tistory.com)에서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다.

한·중·일 '관광골든루트 10선' 추진한다

평창서 3국 관광장관회의… 위기관리매뉴얼 공동 개발키로

한·중·일 관광장관들이 관광위기 발생 시 세 나라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덤핑관광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관광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월 29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6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3국 관광장관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샤오치웨이 중국 국가여유국장, 오오하타 아키히로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과 3국 정부대표단, 민간관광협회장 등 4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5월 28일 3국 관광장관들은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세 개의 회의실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참가해 한·중·일 관광장관들을 맞아 환담했다. 3국 장관들은 2시간 동안 자국의 관광 정책 현안을 상대국에 전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양자회담에는 일본 경제산업성 토야 후미아키 원자력발전소 담당 심의관이 특별 참석해 현재 일본의 원전사태 이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정확한 정황을 알려주기 위한 일본의 세심한 조치로 한국과 중국의 신뢰를 얻었다는 후문이다.

3국 장관은 양자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평창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 3국은 관광 위기상황에 대한 3국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관광업계 등 공공 및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일본 원전 관계자도 참석해 브리핑

이를 위해 상대국가에 위기 발생 시 위기 및 회복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자국 내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특별 프로모션

한·중·일 관광장관들이 회의 개막식에서 도자기에 3국의 우정을 담은 휘호를 쓰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오하타 아키히로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샤오치웨이 중국 국가여유국장.

을 비롯한 관광회복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 테러, 질병 등 위기 유형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위기관리매뉴얼'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 간의 미래관광을 설계하기 위한 'Tourism Vision 2020'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다섯 차례의 관광장관회의가 단·중기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관광교류 규모를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다. 여기에는 3국을 묶는 '관광골든루트 10선' 사업이 포함돼 주목된다. 비전의 구체적인 최종안은 3국 간 협의를 통해 2014년 말까지 완성해 발표하기로 했다.

3국 공정관광 대안(이니셔티브) 마련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저가덤핑상품, 무리한 쇼핑옵션 요구, 관광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관광 관련 위기상황 발생 시 민간부문에서의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민간 관광전문가들의 '한·중·일 관광포럼'도 열렸다. 여기서도 3국 관광장관이 천명한 관광위기 대응체계 마련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는 우선 신뢰가 밑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럼에 참석한 가나이 아키라 일본 여행업협회장은 "일본여행업협회는 동일본 대지진이 한 달 정도 지난 4월 15일 '동일본 대지진 부흥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며 일본의 노력을 전했다. 그는 이어 "테러, 전쟁, 질병, 지진해일 등의 재난과 사건사고 등 수많은 위기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한 3국 간의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 관광전문가들의 '한·중·일 관광포럼'도

정샹민 중국 푸젠성 화교대학교 관광학과장은 "관광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역량만큼 민간 차원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구체적으로 민간이 주체가 돼 공익적인 성격의 관광위기 및 재난 구호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쏟아졌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기상황에 대한 3국 관광협력방안의 하나로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관광안내원의 기본 자격으로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런 노력들은 북미와 유럽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신뢰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5월 30일에는 한중 관광장관이 별도로 양국 간 관광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양측은 '2010 중국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반으로 '2012 한국방문의 해' 관련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양측은 한중 관광분야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방안 등의 협의를 위해 '한중 관광장관회담'을 연례화할 것에 합의했다.

평창 월정사에선 한·중·일 관광대표단들을 위한 차시음회를 가졌다.

일본과 중국 관광장관은 일본에서 별도의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관광교류 확대와 관광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국 장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당위성 역설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3국 관광장관회의는 관광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공통으로 인식하는, 서로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장관들이 서로 관광유치 마케팅과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이었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실제 샤오치웨이 중국 국가여유국장은 연설 때마다 중국인들의 한국, 일본 관광 추세와 실적을 강조하면서 "중국으로 놀러오십시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오오하타 아키히로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 역시 동일본 지진 후 거의 평정을 되찾은 일본관광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일본은 이제 안심하고 오셔도 좋다"는 말을 꼭 덧붙이곤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정 장관도 회의 주최국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번 3국관광장관회의 장소를 강원도 평창으로 정한 것과 3국 관광장관 공동성명을 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스키점프대 앞에서 선언한 것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관광장관회의는 5월 31일 서울 팸투어를 끝으로 모든 공식일정을 마쳤다. G

글과 사진·이혁진 (공감코리아 정책기자)

한땀 한땀… 전통

'목가구 장인' 3인방 이정섭·박종선

외국의 사무 가구는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수명이 긴 철제로
살린 무늬목을 고집한다. 그만큼 목가구는 한국인의 정서와

이정섭은 전통 목가구를 현대 디자인의 개념과 접목시켜 묵직하면서도 세련된 목가구들을 만들어 냈다.

아파트가 한국 주거의 표준이 되고, 현대적인 입식 생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는 서양식 가구도 비판 없이 무조건 복제해 사용했다. 로코코 풍이든 수퍼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베낀 가구든 가짜란 게 분명한 키치였다.

그러나 이정섭, 박종선, 류수현 세 목수가 만든 가구에는 북유럽이나 이탈리아 가구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한국성'이 있다. 게다가 좌식이 아닌 현대적인 생활양식도 충분히 고려한 디자인이다.

스티브 잡스 집에 조지 나카시마의 목제 가구만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일본식 가내 목공예 정신을 미국식 생활에 접목한 그의 가구를 두고 스티브 잡스는 '우아한 장인의 솜씨'라 극찬했다. 그의 의자는 1억원을 훨씬 웃돈다.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의 질은 장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에 따라 좌우된다.

사회가 그들을 대접하면 제품의 질은 향상하고, 대접이 소홀하면 타락한다. 만 번의 손길을 타면 딱 그만큼의 윤이 나는 재료가 바로 나무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성을 조금만 덜 들여도 바로 티가 난다'며 웃는다.

모든 제품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간편하게 나오는 시대에 아직도 옹골지게 나무만 만지는 이들의 손끝은 분명 값어치가 있다.

미대·고교·공대 졸업 등 목가구와 먼 전공

그리스 신전과 노트르담 사원이 돌로 쌓아올린 건축이라면, 한국의 병산서원과 무량수전은 나무로 만들었다. 가만 보면 한국의 전통건축은 서양과 달리 나무로 지은 게 대다수다. 왜 그럴까? 우리의 자연환경을 둘러보자. 고만고만한 야산 천지에 온통 나무뿐이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소재였던 소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가재도구를 마련했다. 아담한 규모의 집에 큰 가구는 어울리지 않았을 터.

당연히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소박하고 실용적인 가구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목가구가 생활화된 덕에 한국 사람은 아직도

가구에 감성을 입히다

·류수현의 작품들 '명품' 반열에

만드는 추세인 데 반해 한국의 사무 가구는 여전히 나뭇결을
닮아 있는 것이다. 묵묵히 가구를 만드는 세 목수를 소개한다.

목제 가구를 선호한다. 외국의 사무 가구는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수명이 긴 철제로 만드는 추세인 데 반해 한국의 사무 가구는 여전히 나뭇결을 살린 무늬목을 고집한다. 그만큼 목가구는 한국인의 정서와 닿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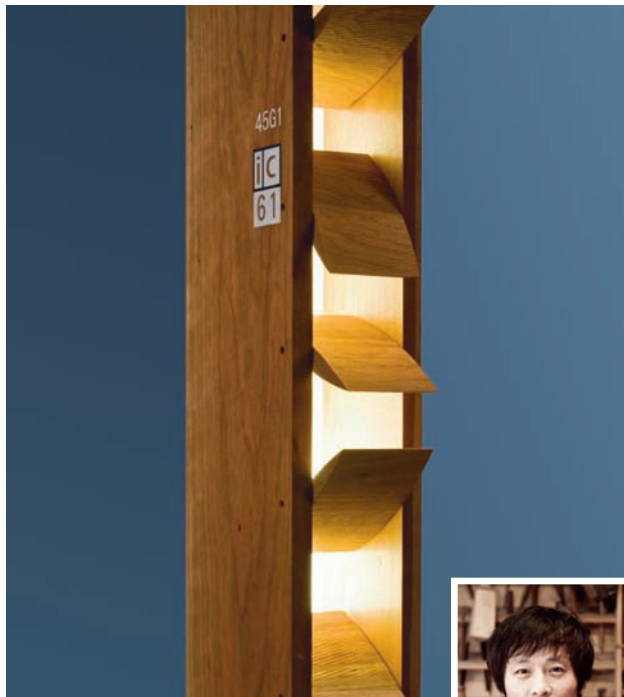
이 선두에 내촌목공소가 있다.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에 자리해 이름이 '내촌목공소'다. 서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나 나무로 가구를 만들고 집을 짓는 게 재미났던 이정섭 목수. 그를 중심으로 젊은 목수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생긴 조직이 바로 내촌목공소다. 이들의 가구는 청담동에서 명품 브랜드 못지않은 인기다.

고정된 틀에 매이지 않는 장인정신에 환호

이들의 가구는 왜 이리 비쌀까. 목수라면 나무에 욕심이 많은 건 당연지사. 북미산 활엽수를 사용한다. 원목을 판재로 잘라 5년 이상 말린 다음 가구를 짠다. 나뭇결 그 자체가 아름다워 최소한의 디자인 외에 다른 치장을 전혀 하지 않는다.

내촌목공소의 가구는 자칫 밋밋하고 평범해 보인다. 투박하고 견고하며 무겁다. 목재 자체에서 풍기는 힘과 내력이 만만찮다. 이정섭 목수가 직접 밝혔듯 '바보온달'처럼 정직하면서 우직하다. 사골을 깊이 우려낸 것처럼 진하다. 좋은 재료로 좋은 가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내촌목공소의 전략이라면 전략이란다.

섬진강가, 산골마을 야트막한 함석집, 박경리의 〈토지〉에서 한국성을 느낀다는 내촌목공소 목수들. 이들의 가구는 우리네 자연, 우리네 정서를 닮아 정이 느껴진다.

북미산 활엽수를 사용해 고가의 가구를 만드는 가구장이가 또 있다. 바로 원주에서 태어나 원주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 박종선 목수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다. 2009년 디자인 마이애미/바젤 전시에 선보인 제품은 모두 팔렸을 정도. 대학도 나오지 않은 그가 나무를 만지게 된 건 20대 후반 액자 공장을 통해서다. 박종선은 문화재청 학교에서 전통공예를

박종선은 조선시대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선과 곡선의 오묘한 조화를 통한 자연스러움을 가구에 잘 표현했다.

류수현은 수작업을 통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작품들로 기능성뿐 아니라 미적 가치를 더했다.

배우며 조선시대 목가구의 기술을 완벽히 터득했다. '딱 10년만 해보자'는 결심은 그 사이 '평생 해보자'로 바뀌었다.

같은 나무를 사용해도 그의 가구는 선이 가늘고 날렵한 게 특징.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용한 가구와 미국 셰이커교 가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밋밋한 뼈대만으로 구성했음에도 균형 잡힌 구조미가 돋보인다. 간결한 선과 명확한 면으로 치밀하게 건축 된 그의 가구는 그 자체로 정연한 질서를 갖춘 오브제다.

각자의 스타일 내세워 꾸준히 주목받아

박종선은 가구라는 고정된 틀에 묶이지 않는 개척자다. '시대적 감성과 전통가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한다. 가구를 만드는 기술에 오디오, 조명등 같은 최첨단 문명을 접목시킨다.

있는 듯 없는 듯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최소의 가구'를 지향하는 박종선의 작업에는 다양한 시도가 응집되어 있다. 최근에는 김은성 카이스트 교수, 이강래 원광대 교수와 더불어 제2회 홍진기 창조인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 금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류수현은 '감성 가구'의 대표주자다. 서울대 금속공예를 졸업한 뒤 미국 로체스터 공과대학에서 가구 디자인을 전공한 류씨는 재현에만 치우친 전통가구와 무조건 서양식을 따르는 현대가구 모두 불만이다. 그는 현재 한국의 생활양식에 맞는 가구를 보여주려 한다.

기능보다 미적 가치에 무게를 더 둔 듯한 그의 가구는 기존 목가구가 보여주는 형식에서 다소 벗어난 느낌이다. 무엇보다 가구를 만드는 과정이 흥미롭다. '찌글거리는 선으로 그려진 드로잉'이 2차원 종잇장을 벗어나 그대로 현실로 툭 튀어나왔다.

손으로 그린 스케치에 디자이너의 감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 류수현. 그는 이를 스캔해 디지털화했다. 그리고 기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화된 스케치의 선을 정확하게 깎아냈다. 그에게 있어 최첨단 디지털 기계는 도구의 연장이자 손의 확장이다. 그렇게 나온 가구가 '분할된 단면' 시리즈다.

이와 정반대의 방법으로 탄생한 조명등도 있다. 띠톱으로 자작나무 합판을 꽃 모양으로 자른 뒤 이를 하나하나 끈으로 엮고 매듭지어 만든 '꽃 조명' 시리즈다. 수공예적인 '한 땀 한 땀' 정신으로 만든 이 제품은 느림의 미학을 담고 있다.

지리멸렬한 시간 싸움을 견뎌낸 디자이너의 노고가 실제 제품이 된 것이다. 디지털 기계와 손, 두 가지의 도구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양손잡이 디자이너 류수현은 가구에 디자이너 개인의 감성을 투영한다. G

글 · 임나리 (월간 디자인 기자)

포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주민센터 옥상 30여 평에 옥상농원이 꾸며져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AJ월드의 옥상농원.

상추 따러 옥상 간다

서울 도심 옥상농원 40여곳… 농업기술센터, 텃밭조성 지원

도시의 텃밭 '옥상농원'에서 자기 손으로 채소를 기르는 도시농부들이 늘고 있다. 그중 눈으로 감상하는 휴식공간인 '옥상정원'이 아니라 직접 채소와 과일을 가꾸면서 맛도 볼 수 있는 옥상농원들이 도시 곳곳에 조성됐다.

서울 신수동 주민센터의 경우 작년부터 30평 규모의 옥상농원에 '커뮤니티 가든'이라는 만남의 장소를 마련했다. 오이, 방울토마토, 상추, 고추 등 총 14종의 채소들을 재배한다. 이곳에서 재배된 채소는 저소득층 어르신과 어린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채소 가꾸기 공간과 시간이 부족한 서울시민을 위해 건물 옥상을 활용한 옥상농원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의하면 서울 도심에는 40여 곳의 옥상농원이 조성되어 있다. G

글과 사진 · 허재성 기자

문의 · 서울농업기술센터 ☎02-459-8993 http://agro.seoul.go.kr

〈조선명탐정–각시투구꽃의 비밀〉

정약용이 봤다면 "내가 좀 웃겨!" 하겠네~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은 영화의 소재로도 자주 쓰인다. 여기에는 주로 픽션이 가미되어 재미와 감동을 주는데, 대중은 실제 사실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다. 그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 〈위클리 공감〉에서는 '역사를 알면 영화가 재밌다'를 연재한다.

일러스트 · 신영훈

김석윤 감독이 올해 초 퓨전사극을 표방하고 만든 영화 〈조선명탐정–각시투구꽃의 비밀〉은 관객수 5백만명을 돌파하며 공전의 히트를 쳤다. 이 영화는 코미디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장르가 마구 뒤섞인 그야말로 퓨전(fusion)영화답게 역사적 사실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끌어다 재미있게 재구성됐다.

영화는 18세기 말 정조 때 실학의 부흥, 무역을 바탕으로 한 상업의 발달, 천주교의 도래, 노론들이 주축이 된 신권·정조의 왕권 강화책과의 갈등 등 역사적 상황을 바탕에 깔고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주인공인 탐정(김명민 분)은 그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정약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한다.

영화에서는 마치 조선후기에 탐정이라는 관직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탐정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영어 단어 'Detective'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다. 조선후기에 탐정과 비슷한 일을 한 관직이 있다면 그것은 암행어사일 것이다. 암행어사는 지방관의 비리를 알아내 벌을 주는 역할도 했지만 민간을 사찰하여 백성들의 은원(恩怨)을 해결해 주는 일도 했다.

다산과 영화 속 명탐정은 얼마나 비슷할까

조선 후기 뛰어난 실학자이자 정조의 총애를 받고 있던 정약용은 1794년 은밀히 왕명을 받고 적성, 마전, 연천 등 경기도 일대에 암행어사로 나간 적이 있다.

영화의 배경이 된 적성지역이 바로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나간 곳이다. 이때 정약용의 나이 33세였다. 영화 속 명탐정이 임오생이라고 나이를 밝히고 있는데 임오년은 1762년 정약용이 태어난 해이다. 영화에서 탐정은 홍문관 수찬(정육품)의 자리에 있다가 임금의 명으로 명목상 열녀정표를 하기 위해 적성으로 간다.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가기 전 직위도 홍문관 수찬이었다.

정약용이 적성방면에 암행어사로 간 이유는 물론 연쇄살인범을

잡는 일은 아니었다. 정약용은 경기 서북부 일대의 농촌상황을 살피고 지방수령을 감찰했다. 적성을 지나면서 정약용은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충격받는다. 그리고 암행어사의 일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다짐으로 시를 한 편 지었다.

'(전략)구리 수저 이정(里正)에게 빼앗긴 지 오래인데
엊그젠 옆집 부자 무쇠솥 앗아 갔네.
닳아 해진 무명 이불 오직 한 채뿐이라서
부부유별 이 집엔 가당치 않네.
어린 것 해진 옷은 어깨 팔뚝 다 나왔고
날 때부터 바지, 버선 걸쳐 보지 못하였네.(중략)
지난 봄에 꾸어 온 환자미가 닷 말인데
금년도 이 꼴이니 무슨 수로 산단 말가.
나졸놈들 오는 것만 겁날 뿐이지
관가 곤장 맞을 일 두려워 않네.(중략)
폐단과 어지러움 근원이 혼란하니
공수, 황패 다시 온들 바로잡기 어려우리.
정협의 유민도를 넌지시 본받아서
시 한 편에 그려 내어 임금님께 바치리다.'

정약용의 시 '적성촌에서' 中

시에서 그려진 당시 농촌의 모습은 영화 속 적성의 백성들 그 모습과 흡사하다. 정약용은 적성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일대의 고을을 돌면서 연천현감 김양직과 삭녕군수 강명길의 뇌물 수수, 세금 착복, 고리대 등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 이들을 벌주게 했다.

김양직은 사도세자의 현릉원 자리를 봐 준 지관이고 강명길은 혜경궁 홍씨의 주치의관 출신이라 모두 그 위세에 눌려 꼼짝을 못했지만, 정약용에게 그들의 인맥과 특권은 의미가 없었다. 당시 30대 초반의, 정조의 총신이었던 정약용은 임금에게 직언을 올릴 수 있는 패기만만한 젊은이였다.

흔히 정약용은 그의 엄청난 저작물과 깊이 있는 사상으로 인해 철학자나 개혁가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그의 18년간 유배생활의 업적이고 30대의 정약용은 새로운 배움에 목마른 재기발랄하고 천재적인 기술관료였다. 젊은 나이의 정약용은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문물과 과학기술에 열광하고 이를 더 배우기 위해 종교도 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천주교와 함께 들어온 서양문물을 좀 더 알고 싶어 쉽사리 세례를 받았지만 천주교의 교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여기고 곧이어 배교했다. 다소 과장되고 코믹한 설정이지만, 영화 속에서 탐정이 큐빅 퍼즐 하나 얻기 위해 선불리 세례를 받고 이것이 내내 약점이 되는 것은 정약용의 인생과 거의 흡사하다.

조선DB

정약용은 조선 정조시대 때 '탐정'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한 암행어사로 활약했다. 사진은 영화 〈조선명탐정-각시투구꽃의 비밀〉의 한 장면.

정약용은 홍문관 수찬 시절 정조의 현릉원 행차를 위해 한강에 배를 이어 붙여 배다리를 만들기도 했고, 화성을 설계했으며 거중기를 개발하기도 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는 건축가나 기계설계사였던 셈이다. 영화 속 탐정도 자연과학에 매우 달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에 적용한다. 영화 말미에 나오는 거중기 설계도도 정약용의 설계도이다.

귀양 가기 전 젊은 정약용은 천재적 기술관료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과학자였던 30대 정약용의 성격은 어땠을까? 영화 속 명탐정처럼 코믹하고 경박하진 않을지라도 꽤나 유쾌하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는 젊은 시절 도박을 해 보기도 했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워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꽃을 좋아해 옷깃에 꽃이 다칠까봐 직접 대나무 울타리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매우 다정하기도 했던 것 같다.

정조의 전폭적 후원과 총명한 머리, 올곧은 가치관과 정치적 포부를 두루 갖추었던 젊은 나이의 정약용. 어쩌면 그도 영화 〈조선명탐정-각시투구꽃의 비밀〉 속 주인공 탐정처럼 기록되지 않은 삶의 어느 한순간에 이것저곳을 기웃거리고,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며 조선 거리를 종횡무진 질주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G

글 · 김정미 (시나리오 작가)

평창의 초여름

천년고찰 전나무 숲길서 사색 "우린 천년만년 사는것도 아닌데…"

강원도 평창에 신록이 깊었다. 월정사로 가는 전나무숲길은 초여름 햇빛을 튕겨내며 빛나고 자생식물원에는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었다. 드넓은 대관령목장의 초원을 거니노라면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것 같다.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가는 길. 아늑한 숲길은 걷기에도 좋다.

강원도 평창 여행의 출발은 월정사라는 대가람이다. 월정사는 가람의 장엄함만으로도 감탄스러운 곳이지만 일주문에서 가람으로 이어지는 빽빽한 전나무숲길 역시 회색 콘크리트 더미에 묻혀 사는 도시인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월정사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지어진 고찰이다. 자장율사가 창건했는데 보름달 빛이 유난히 밝아 월정사라고 했다고 한다. 월정사는 한국 근대의 고승인 방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 주석했던 사찰로도 유명하다. 방한암 스님은 조계종 초대종정을 지냈다.

일본 사토오라는 고승은 방한암 스님을 '세계에서 둘도 없는 인물'로 평가했다. 탄허 스님은 청년 시절 3년 동안 한암 스님과 편지를 나누다 제자가 된 선승이다. 〈화엄경〉 1백20권을 번역·출간한 것을 비롯해 〈화엄론〉 40권, 〈육조단경〉, 〈보조법어〉, 〈사교〉, 〈사집〉 등 많은 저서를 냈다.

월정사에서 눈길을 줄 만한 것은 8각9층석탑이다. 17동이나 되었다는 법당은 한국전쟁 때 모두 타버리고 말았다. 근세에 새롭게 세워진 사찰은 고색창연한 맛은 덜하지만 당당함과 장엄함을 느끼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고려 초기에 세웠다는 석탑은 층층 모서리마다 쇠종을 달고 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작은 쇳소리가 산을 울린다. 바람이 내는 종소리의 여운이 유난히 길다.

월정사는 한국 제일의 '아름다운 숲길'을 가지고 있다. 주말과 휴일이면 도시의 소음에 시달린 수많은 여행객이 월정사 전나무숲을 거닐며 고요와 평화에 몸은 맡긴다. 금박 글씨의 '월정대가람'(月精大伽藍)이란 현판이 붙은 일주문에 들어서면 숲길이 시작된다.

월정사 8각9층석탑. 층층 모서리마다 쇠종을 달고 있어 바람이 스칠 때마다 명징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천년고찰 월정사 여행의 백미 전나무숲길

숲길은 아름드리 거목 사이로 물처럼 흘러든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음이 착 가라앉는다. 티끌 같은 망상과 잡념이 깨끗이 사라져 버리는 듯하다. 길이는 800미터 정도. 왼쪽으로는 상원사 앞을 지나 흘러온 계곡물이 흐르고 오른쪽에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숲길은 직선으로 반듯하게 뻗어 있지 않다. 이리저리 굽어 있다. 길의 초입에는 삭발탑이 서 있다. 아마도 세상과 인연을 끊고 입산한 스님들에게 절에 들어올 때의 첫 마음가짐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세운 탑일 것이다. 삭발탑을 지나면 장정 두어 명이 손을 잡아야 할 정도로 굵은 거목들이 서 있다.

전나무는 가지가 직각으로 뻗었을 뿐 아니라 길이도 짧다. 다른 나무들처럼 'Y'자로 가지를 펼쳐 큰 그늘을 드리우지 않는다. 다 자란 나무는 키가 30~40미터 정도 된다.

월정사 전나무는 아홉 수에서 시작됐다. 수령 5백 년의 전나무 아홉 그루의 씨가 퍼져나가 울창한 전나무 숲을 이뤘다고 한다. 숲길에선 초여름의 강한 햇빛도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 공기는 싱싱하고 상쾌하다. 걷다 보면 도토리를 쥔 다람쥐와 청설모들이 여행자의 뒤를 따른다.

월정사는 오대산 산사 여행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월정사에서 출발해 상원사와 적멸보궁을 돌아볼 수 있다. 상원사는 자장율사가 창건한 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동종이 있다.

1천3백년 전에 만들어졌다. 높이 1.68미터, 구경 91센티미터, 무게 3천3백근에 달한다. 종에 새겨진 여러 문양이 우아하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두 갈래, 세 갈래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한다. 상원사에서 1.6킬로미터 떨어진 적멸보궁은 오대산 산사 여행의 클라이맥스다. 겉치레를 하지 않은 자그마한 절에는 불상도 없다.

부처의 몸이 있기 때문이란 이유다. 하지만 적멸보궁이 감싸 안

은 풍광은 광활하다. 뒤로는 비로봉이 호위하고 앞으로는 오대산의 육중한 능선이 펼쳐진다.

한국의 풍수학자들은 오대산 적멸보궁이 대단한 터에 자리 잡았으며 땅의 힘이 굉장하다고 평가한다. 그 말이 아니더라도 적멸보궁에 오르면 장쾌한 풍경에 속이 확 트인다. 이런 대단한 자리에 부처의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승려들이 먹을 것 걱정 없이 수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대관령목장·양떼목장 초원은 한 편의 드라마

평창을 수식하는 캐치프레이즈는 '해피 700(Happy 700)'이다. 해피 700이란 해발 7백미터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고도라는 데서 나온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평균 고도가 7백미터인 곳은 평창과 태백뿐이다. 고원도시 평창의 면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여행지는 대관령삼양목장과 양떼목장이다.

6백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넓이를 자랑하는 대관령삼양목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다. 선자령과 매봉, 그리고 황병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허리에 위치한 대관령삼양목장은 목장을 한 바퀴 도는 일주도로의 길이만 22킬로미터에 달한다. 자동차로 한 바퀴 도는 데 1시간30분이 걸린다. 비포장도로인 이 일주도로는 오프로드 마니아들에게 레이싱 코스로도 인기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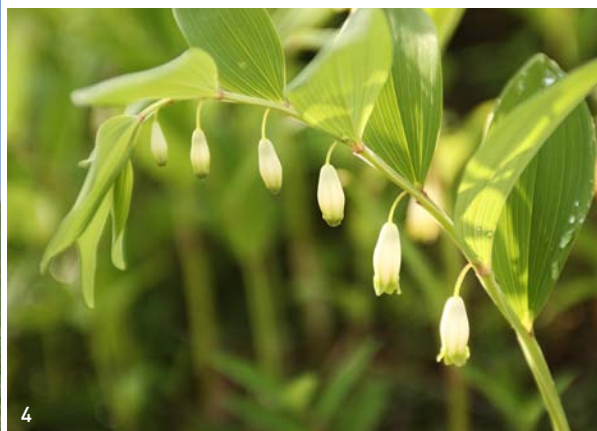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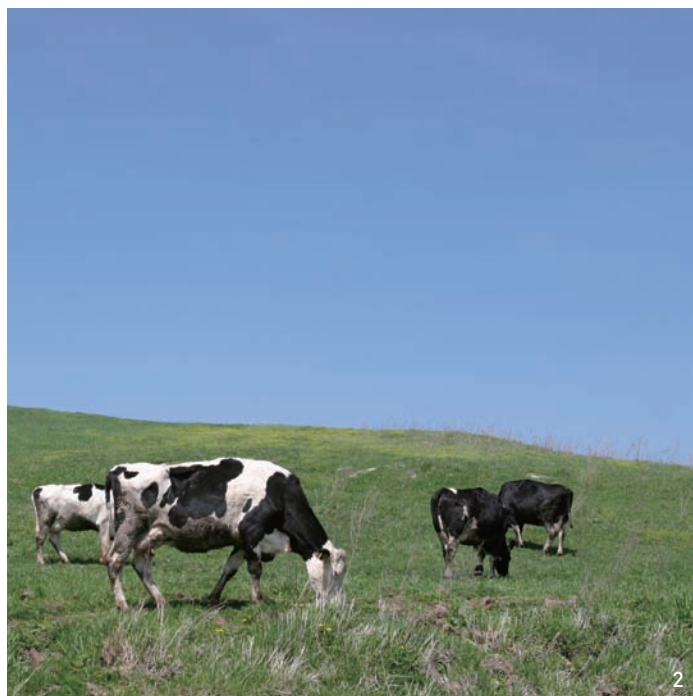
대관령삼양목장의 드넓은 목초지는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촬영 무대기도 했다. 이성재가 주연한 〈바람의 전설〉을 비롯해 장동건과 원빈이 주연한 〈태극기 휘날리며〉, 한석규의 〈이중간첩〉, 유오성의 〈별〉, 드라마 〈가을동화〉 등 숱한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했다.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뒤편에 있는 양떼목장은 진영대 씨 부부가 가꾸는 개인목장이다. 넓이는 6만2천여 평. 이곳에 양 2백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대관령목장이 광활함을 자랑한다면 양떼목장은 아기자기하다. 그네가 매어져 있는 나무를 지나면 산책로가 시작된다.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길이 이어지고 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다. 울타리 안에서는 양들이 20~30마리씩 모여 노닌다. 20여 분 천천히 오르면 언덕 정상에 닿는데, 벤치 하나가 놓여 있는 이곳에서 잠

1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떼목장은 이국적이면서도 아기자기한 풍경을 자랑한다.

2 대관령삼양목장. 드넓은 목초지는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촬영무대기도 했다.

3, 4 한국자생식물원은 우리 꽃으로만 꾸며놓은 식물원이다. 금낭화(위)와 은방울꽃(아래)도 구경할 수 있다.

깐 쉬어갈 수도 있다. 벤치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막힘이 없다. 멀리 평창 읍내가 손바닥만 하게 보인다.

한국자생식물원에도 꼭 들러보자. 오로지 토종 우리 꽃과 나무만으로 꾸며놓은 식물원이다. 1만여 평에 달하는 우리 꽃 재배단지에서 철마다 대단위로 키워내는 꽃이 시원하게 눈길을 붙잡는다.

우리 토종꽃이 한데 모인 한국자생식물원

한국자생식물원은 사람명칭식물원, 동물명칭식물원, 향식물원, 독성식물원, 희귀·멸종위기식물보존원 그리고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군락지(재배단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람명칭식물원에는 애기나리, 처녀치마, 홀아비꽃대, 할미꽃 등을 모아놓았고, 동물명칭식물원에는 범부채, 노루귀, 병아리꽃나무, 노루오줌 등 동물이름이 들어 있는 식물을 심어놓았다. 두 곳을 돌아보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꽃이름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신갈나무 숲길을 따라 도는 30분짜리 산책코스 역시 빠뜨릴 수 없다. G

글과 사진 최갑수 (시인·여행작가)

여·행·정·보

가는 길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진부IC로 나온다. 서울에서 약 2시간20분~3시간 걸린다. 톨게이트를 나오자마자 좌회전 후 4킬로미터쯤 달린 뒤 월정삼거리에서 456번 지방도를 따라가다 좌회전, 4킬로미터쯤 더 달리면 간평교가 나타난다. 삼거리에서 좌회전해 446번 지방도를 따라 4킬로미터를 더 들어가면 월정사 앞이다.

잠잘 곳 횡계 쪽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용평리조트**(033-335-5757), **대관령호텔**(033-335-3301) 등이 있다. 진부에도 **호텔오대산**(033-330-5000) 등 숙박할 곳이 많다.

먹을 곳 오대산 자락은 맛깔스런 산채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월정사 매표소 앞에 **가마솥식당**(033-333-5355), **오대산산채일번가**(033-333-4604) 등 산채집이 몰려 있다. 횡계 로터리 옆의 **납작식당**(033-335-5477)은 고추장에 버무려놓은 오징어 불고기가 맛있다. 무더위로 달아난 입맛을 되돌리는 별미로 시원한 메밀국수도 빼놓을 수 없다. 봉평다방 옆 **현대막국수**(033-336-0314)는 35년 전통의 집이다. 조선간장과 메밀육수로 만든 국수가 고소하다.

〈7년의 밤〉

남의 삶을 희롱하는 운명의 변화구

오랜만에 한국소설이 독서시장에서 시쳇말로 대박을 터트린 모양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판매량을 올리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고 영화로 제작된다. 좋은 일이다. 우리 문학이 의외로 침체기에 들어서 일부 유명작가를 빼고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 시대를 살아가며 구성원들이 느끼는 삶의 애환을 문학만큼 잘 형상화할 매개는 없다. 문제작이나 화제작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 약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 삶에 대한 집단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신인작가의, 그것도 문학상을 거푸 받은 작가의 장편이 화제가 되고 있어 꼼꼼히 읽었다. 정유정의 〈7년의 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칭찬 일색이었다. 솔직히 작품을 읽고 나서, 너무 많은 칭찬에 과장되지 않았나 싶었다.

흡인력 강한 문장, 현장에 대한 치밀한 조사,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놀라운 형상력,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드러내는 수작 등의 평가는 이 작품만이 아니라 웬만큼 잘 쓰인 장편소설에는 일상적으로 따라붙는 수사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잘된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드러내 놓은 작품이라 지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반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신인이라는 평가는 걸맞지만, 주변의 평가가 너무 과하다는 인상을 씻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 작품을 읽을 필요 없다는 막돼먹은 소리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칭찬이라는 거품을 걷어내고 읽으면 나름의 미덕과 생각할 거리를 전해 주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의 구도가 기존의 틀을 깬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의 정치적 무의식에는 사적 보수의식이 팽배해 있는 듯싶다. 공권력이 갈등을 정당하게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박찬욱 감독이 발표한 일련의 영화가 이런 생각을 주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로 그런 작품은 사회적 약자가 강자를 대상으로 펼치는 개인적인 복수극이 대세를 이룬다.

〈7년의 밤〉은 상투적인 그런 모티브 자체를 뒤집는다. 남부러울 것 없는 토호가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에게 지독하고 끈질긴 복수를 하고 있다. 이 전복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 평론가가 지적했듯 사회적이거나 정치적 함의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작품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말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의 사고가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 배어 있는 우리 삶의 현주소를 곱씹어 보면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가 많다.

작가가 굉장히 공들여 창조해 낸 인물이 전직 야구선수인 최현수다. 지지리도 궁상맞은 집안에서 태어나 무능력한 아버지 밑에서 힘겹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삶을 희롱하는 운명의 변화구를 제대로 쳐내지 못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저지르고 처절한 복수극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불행을 자신의 대에서 끝내려는 변화된 아버지상

이 인물에 주목한 것은, 변화한 아버지상을 예고하고 있다 싶어서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자식 세대에게 물려주려 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이런 모습은 모성애에 해당했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다시 그런 아버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최현수는 불행의 유전자를 자신의 대에서 끝장내기 위해 몸부림친다. 거대한 몸으로 벌이는 이 연약한 몸짓이 관심을 끌고 이 인물에 몰입하게 했다. 의외로 많은 남성이 비슷한 경험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본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현수처럼 처절하게 노력한다면, 정말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겠지 싶었다.

세령호에 인물들이 모여들고, 그들 삶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잠수라는 독특한 장치가 나타나고, 절대악의 소유자가 벌이는 끔찍한 횡포 등이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드는 데 이바지한 듯하다. 그러나 영화가 되어야 좋은 소설은 아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회피하는, 적나라한 삶의 내면을 드러내는 작품이 좋은 소설이다. 〈7년의 밤〉을 이런 시각에서 읽어 보면 좋을 성싶다. G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계단 행진곡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엘리베이터를 잡으면
잠깐만요~
소리가 나지만
삐~~
계단을 걸으면 음악이 나옵니다.
딩
동
댕
동~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녹색강국을 만듭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6〉

문화와 더불어 사는 숨은 고수를 찾아서…

유홍준 지음
창비 펴냄·1만6천5백원

1993년 '남도답사 일번지'로 시작된 유홍준(62) 명지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유행시키며 90년대 전국적인 답사 열풍을 몰고 온 베스트셀러다. 유 교수는 최근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6권 '인생도처유상수'를 냈다. 국내편 세 권, 북한편 두 권에 이어 10년 만에 만나는 시리즈의 새 책이다.

책의 부제인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上手)'는 '삶의 도처에서 숨어 있는 고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의미를 지녔고, 유 교수가 자주 쓰는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은 새 책의 성격을 확연히 보여준다. 그동안의 책들이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번 책은 문화유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명작이 탄생하는 과정에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수한 상수(上手)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것의 가치를 밝혀낸 이들도 내가 따라가기 힘든 상수였으며,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묵묵히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필부 또한 인생의 상수들이었다.'

저자가 책머리에 적은 대로 경복궁, 광화문, 선암사, 도동서원 등을 둘러보는 이번 책에는 다양한 '상수'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경복궁 근정전 앞뜰의 박석이 지닌 가치를 발견해 낸 경복궁 관리소장, 일반인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수백 가지 봄나물을 줄줄 꿰고 있는 무량사 사하촌 할머니들, 광주비엔날레 대상 수상작의 의미를 천연덕스럽게 해석해 내는 촌로 등에게서는 학식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경험과 연륜을 발견할 수 있다.

저자가 4년 동안 문화재청장을 지내며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스며 있는 것 역시 이번 책의 특징이다.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유홍준 교수는 "경복궁 경회루의 물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는 문화재청장을 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더 자세히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자가 이번 책에서 가장 공을 들여 설명하고 있는 문화재는 바로 경복궁이다. 우리나라 건축이 갖고 있는 모든 미학과 특징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간혹 사람들이 중국의 자금성 등과 비교해 비하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웠다고 한다. 유 교수는 "경복궁 안에도 상당히 많은 조각과 건축적인 디테일이 있다. 우리 조선왕조 6백년 정궁이라는 역사적 가치와 그 미학을 함께 담아 보려 애썼다"고 밝혔다.

글 · 정아영 (매일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새로 나온 책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최인호 지음 | 여백 펴냄·1만2천8백원

토요일 아침, K는 휴일 아침에 왜 알람을 맞췄는지 의문을 가진다. K는 자신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변화를 겪으며 일상에서 뭔가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한다. 가족을 만나보라는 정신과 전문의 친구의 말에 누이를 찾은 K. 하지만 누이와 자신이 공유하는 기억이 어긋나 있다는 사실에 더욱 혼란에 빠진다. 암 투병 이후 저자가 5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10년 후 미래

대니얼 엘트먼 지음 | 청림출판 펴냄·1만5천원

뉴욕대 교수인 저자는 도발적이지만 논리적인 방법으로 10년 후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어떤 국가가 위험에 직면할지, 성공적인 투자 분야는 무엇일지 등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딥 팩터(Deep factor). 지리적 위치, 정치, 법률, 인구 등 단기간에 변하기 힘든 심층적인 요인인 딥 팩터가 세계경제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역설한다.

나무처럼 자라는 집

임형남·노은주 지음 | 교보문고 펴냄·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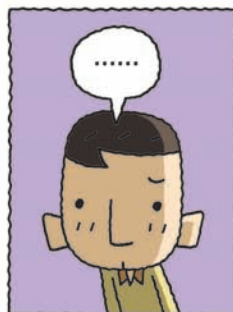
지난 20여 년간 집 설계를 꾸준히 해온 부부 건축가 임형남·노은주가 집에 대한 성찰과 건축 철학을 풀어썼다. 저자들은 우리 전통 건축을 통해 좋은 집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산청 산천재와 논산 윤증고택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좋은 집이란 편안함과 함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추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 그카자!

글과 그림 · 최영순

경상도 어느 도시에 힘겹게 공장에 다니며 자취하는 친구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늦게 퇴근하는 한 친구는 힘들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후우.....

'희망'은 모든 질병을 고치는 최고의 특허약이다.
– 탈무드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뱃머리에서 사랑을 속삭이던 젊은 두 연인은 가장 행복해야 할 약혼식 날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인 전도유망한 선원 에드몬드 단테스는 나폴레옹의 탈출을 도왔다는 친구들의 흉계로 악명 높은 감옥 샤토 디프에 14년간이나 억울하게 갇혀 버린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은 있는 법. 감옥에서 스승 파리아 신부를 만난 단테스는 함께 터널을 통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철학, 외국어, 수학, 정치, 검술 또한 배우게 된다.

탈출 과정에서 파리아 신부는 이승을 떠나지만 몬테크리스토 섬에서 찾아낸 보물을 통해 단테스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다시 태어난다.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고향에 돌아온 단테스는 정적 당글라스와 몬테고에게 차근차근 복수를 실행한다.

1845년에 쓰인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배신과 복수를 다룬 고전이다. 14년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탈출한 남자의 무시무시한 집념의 복수극은 뮤지컬로 만들기에 손색없는 선 굵은 이야기의 전형이다. 지난해 4월 국내 초연의 성공도 매력적인 이야기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 3월 1년여 만에 돌아온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전폭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친 모습이었다. 음악과 볼거리, 유머와 비장함이 조화를 이룬 ‘웰메이드’ 뮤지컬로 다시 태어난 듯했다. 스위스에서 초연된 유럽산 뮤지컬이지만, 재창작에 가까운 업그레이드로 완전한 한국화에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했다.

〈몬테크리스토〉는 방대한 이야기를 압축한 작품이다. 〈삼총사〉 〈아이언 마스크〉를 쓴 뒤마의 원작은 5권에 달한다. 초연 당시 이야기의 비약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제작진은 이야기의 전달을 위해 고심한 듯 보였다. 로마와 파리, 해적선, 보물섬을 오갈 때마다 영화처럼 만들어져 덧입힌 영상을 통해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장소	날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6월 10~12일
울산현대미술회관	6월 23~25일
제주아트센터	7월 8~9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7월 8~9일

조선DB

음악과 볼거리를 재창작에 가깝게 업그레이드한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지난해 후반부의 복수극이 지나치게 갑작스럽다는 지적을 반영해 복수극의 연출을 강화시킨 점도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고 장중한 비극만 있는것도 아니다. 절망에 빠진 단테스에게 탈출과 복수의 꿈을 되살려 준 파리아 신부(김성기)는 이 작품의 웃음을 책임진다. 그로 인해 희극과 비극의 장점을 두루 지니게 됐다.

가장 큰 매력이었던 프랭크 와일드 혼 음악의 호소력은 여전했다. 〈지킬앤하이드〉에서 〈지금 이 순간〉 등의 명곡을 남겼던 그는 단테스와 메르세데스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부르는 이중창 〈언제나 그대 곁에〉 등의 기억에 남는 화음을 빚어낸다.

단테스 역은 류정한, 엄기준, 신성록이 번갈아 맡고, 메르세데스는 옥주현, 차지연, 최현주가 맡는다. 류정한은 폭발적인 가창력에서, 엄기준은 세밀한 감정연기에서, 신성록은 시원시원한 액션에서 강점이 있었다. 캐스트별 장점이 다르니 비교하며 감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G

글 · 김슬기 (매일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연극 최정원의 음악극 〈피아프〉–목포 〈피아프〉는 20세기 최고 샹송 가수인 에디트 피아프의 짧지만 강렬했던 47년간의 삶을 그녀의 노래와 함께 재구성한 작품이다. 피아프는 1912년 프랑스 파리 빈민가에서 태어난 소녀였다. 거리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4년간 맹인으로 살기도 했다. 1944년 물랭루주 무대에서 이브 몽탕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발표한 피아프는 그녀가 직접 가사를 쓴 〈장밋빛 인생〉(La vie en rose)을 발표한다. 연극에서 피아프 삶을 살아 내는 주인공은 뮤지컬 배우 최정원이다.

일시 6월 18~19일 **장소** 목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061-270-8100

콘서트 부활 라이브 콘서트 IN 대전 〈사랑할수록〉〈회상〉〈네버 엔딩 스토리〉 등 오늘날의 부활을 있게 한 수많은 명곡들로 가득 채워져 '27년, 부활의 아름다운 음악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부활'은 1985년 그룹 'The End'로 시작됐다. 팀명을 '부활'로 바꾼 시기는 김태원이 김종서를 영입하면서부터이다. 김종서가 '시나위'로 옮겨가면서 이승철이 보컬로 영입됐고 1집 〈희야〉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시나위' '백두산'과 함께 대한민국 3대 록 밴드로 자리매김했다.

일시 6월 11일 **장소** 대전 우송예술회관 **관람료** VIP석 8만8천원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문의** 1600-4534

클래식 말러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I–Symphony IV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1860~1911)의 서거 100주년 기념공연이다. 중국의 리 신차오가 지휘를 맡고, 소프라노 오은경,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협연한다. 말러의 교향곡 제4번 사장조와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1번 다장조 〈주피터〉 작품 551 등이 연주된다. 리 신차오는 중국 중앙음악원을 졸업하고 23세의 나이에 중국국립오페라발레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했다.

일시 6월 16일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051-607-3111

공연소식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그리스	한전아트센터	6월 12일까지	1588-5212
젊음의 행진	유니버설아트센터	6월 26일까지	02-738-8289
아이러브유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6월 25~26일	053-550-7116
지킬앤하이드	샤롯데씨어터	8월 15일까지	1588-5212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동해문화예술회관	6월 18일	033-530-2041
늙은 도둑 이야기	대학로아트원씨어터 3관 차이무 극장	6월 30일까지	02-762-0010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10주년 공연	유시어터(청담동)	8월 28일까지	02-556-5910
옥탑방고양이	SM틴틴홀	오픈런	02-764-8760
콘서트			
윤수일 밴드 전국투어	군산월명체육관	6월 18일	1544-0674
컬투쇼 대학로 소극장공연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1	7월 3일	1544-4997
이은미 콘서트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7월 9일	031-8018-5200
클래식			
말러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6월 16일	051-607-3111
송영훈의 4첼리스트 콘서트-대구	계명아트센터	6월 25일	02-2658-3546
무용			
디스 이즈 모던 2	유니버설아트센터	6월 9~12일	070-7124-1737
대한민국발레축제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6월 18일	02-587-6183
프리미엄 런치콘서트 〈자미(滋味)〉	삼청각 프리미엄 상설공연	6월 29일까지	02-765-3700
김덕수의 전통연희상설공연 〈판pa : n〉	전통연희상설극장 광화문아트홀	오픈런	02-722-3416

6월 첫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5월 22일~5월 28일

곡명	가수
1 나와 같다면	김연우
2 여러분	임재범
3 늪	김범수
4 보통	백지영
5 Lonely	2NE1
6 사랑	임재범
7 내 손을 잡아	아이유
8 Fiction	비스트
9 두근두근	써니힐
10 Ma Boy	씨스타19

인생 2막, 은퇴 봉사에 응원을

은퇴자 K씨. 60세에 평생직장에서 물러났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2, 3년 전부터 골똘히 생각해 왔건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 이제 답을 얻었다.

더 이상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포기하자. 그러나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일거리는 계속 찾자. 그러려면 봉사하는 일자리가 좋지 않을까. 알게 모르게 제 잇속부터 챙기며 살아온 인생, 이제 돈벌이까지 포기한 이상 기왕이면 이타적으로 살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인생 2막의 길이 아닐까.

제일 고민한 것은 수입이 없어졌으니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였다. 그는 그가 가진 것을 점검해 보았다.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 적금이 전부였다. 생활비 등이 얼마나 들까도 예상해 보았다. 이제는 자식들 교육비가 들지 않으니 두 내외가 먹고사는 데는 그다지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렇다면 생활비 등을 더 벌기 위해 굳이 경제적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 찾고자 한다면 못 구할 것도 없다. 일생 구축해 온 인맥이나 자신에게서 덕 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 설마 나 몰라라 할까. 그러나 그렇게 해 보았자 몇 년이나 더 하겠나. 그 후엔 또 지금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생활비를 벌며 생활한다면 내가 죽은 다음 남는 재산은 누구에게 가느냐이다. 보나 마나 자식들에게 상속되겠지. 그렇다면 나는 결국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상속해 주기 위해 돈벌이를 계속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순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자식들 교육시키랴 먹고살랴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해 왔던가. 진실로 나를 위한 시간을 찾아본 적이 있었던가. 물론 전혀 없지는 않지만, 현실은 나를 그냥 놔두질 않았다. '이제 나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당신을 위한 시간을 찾으세요'라는 어느 분의 말이 문득 생각났다.

그래서 결심했다. 살아 있는 동안 예·적금을 조금씩 찾아서 쓰자. 그것이 모자란다면 집 한 채 남은 것으로 역모기지에 가입하자. 매달 조금씩 찾아 쓰고 나중에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상속해 주자. 모름지기 자식들이 자립심을 길러 스스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던가. 그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몇푼 되지 않는 돈벌이를 위해, 그것도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또다시 나를 버리고 일에 빠질 것인가. 참 무상한 일이라는 슬픔이 다가왔다.

일러스트·유현호

평생직장에서 은퇴한 뒤 대부분이 갖는 고민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이다. 만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정도의 여유만 된다면 이제 이타적으로 살아도 좋을 것이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봉사하는 삶, 이것이 인생 2막의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자. 이제 돈벌이 부담 없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자. 그리고 기왕이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다가 죽자. 원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니었나. 자기실현과 세상에의 기여,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는가.

사람마다 형편이 다를 것이다. 은퇴 후에 집 한 채는커녕 하루 세 끼도 어려운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나마 나는 집 한 채라도 있는 가진 쪽에 속한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젠 실행할 때다. G

글 ·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표)

「만5세 공통과정」에 대한

명칭 공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정부는 취학 직전 1년, 즉 모든 만5세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자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 5. 2일 발표)
2012년 3월부터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5세 유아에 대하여 교육비와 보육료를 전면 확대 지원하고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구분 없이 「**만5세 공통과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모내용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취지를 잘 나타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

공모자격 제한 없음

공모기간 2011. 5. 13(금) ~ 6. 30(목)

접수기간 2011. 5. 16(월) ~ 6. 30(목) 24:00까지 (접수기간 내 도착한 응모작에 한하여 심사)

접수방법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보건복지부 (**www.go.kr**)에 첨부된 신청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child5@kicce.re.kr**) 접수

심사기간 2011. 7. 1(금) ~ 7. 14(목)

결과발표 2011. 7. 15(금) 육아정책연구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

심사기준
- 만5세 공통과정의 취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효과적 표현)
- 기존의 명칭들과 차별화되는가? (참신성)
- 누구든지 사용하기 쉬운 명칭인가? (사용 용이성)

시상내용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 장려상 4명 [각 50만원]

주 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주 관 육아정책연구소

문 의 처 육아정책연구소 **02-398-7737** (한영숙 연구원 **hys77712@kicce.re.kr**)

정예화된 선진강군

나라를 위한 고귀한 헌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입니다

≫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시료 채취 참여

"단 한번의 참여로 돌아오지 못한 혈육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전화신청(우편채취 가능)

≫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 신고

- 직접 매장, 목격, 발견 또는 들으신 내용
  - * 제보결과 유해발굴시 소정의 포상금 지급

전화 : 1577-5625(오!6·25)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